



# **생명샘 (living Stream)**

Korean and English



Book 14 (2009)

**White Young Jeon**

**Cambodia Reformed Faith Institutes**

머릿말

## 목차

### 1.

## 주님의 교회(고후 13:11-13) 2009. 2.8

창립 23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이 세운 교회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마무리 하는 바울은 주님 교회의 청사진은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11-13)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교회란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하며 그것을 이루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첫째, 교회가 나갈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청사진 속에 겨냥한 목표는 온전함이었습니다. 11절에 " .. 온전하며"라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교회는 3가지의 특징을 보여야합니다. 1) 사도성. 한 마음으로 거룩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엡2:20) 사도의 성경관이 서 있는 곳이 주님 교회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 영생이 말씀으로 나타났고 그 말씀을 믿어 그를 알아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나 있어도 그 영생을 맛본 사람은 그리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기록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다 좋다고 말하거나 모두 착하게 살라고 하는 대답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거룩성. 사도가 믿은 성경관대로 믿은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카도쉬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문화와 문명을 이용하지만 그것에 권위를 두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하지만 중심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며 기호와 방법이 다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입맞춤, 그 아들에게 입맞춤의 표현들은 모두

친밀한 연합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지만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3) 천국성, 지상에서의 천국은 성령 안에서의 의, 평강, 희락입니다. 교회는 영원 세계에 가기 전 세상 속에서 천국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산의 제자들의 체험과 다메섹의 바울의 체험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둘째, 어떻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13절에 사도의 축원에서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마28:20) 민수기 6장의 대제사장적 축원에 은혜, 평강, 보호가 사도의 축도에 또 다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사도 축원의 모델로 봅니다. 이것은 성도의 완전무장한 하나님의 전신 갑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인 누가복음 15:의 세비 유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그림에는 교회의 처음과 과정과 완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은혜가 능력이며 성부의 사랑이 능력이며 성령의 자상한 손길이 능력임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청사진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아 내게 능력이 없음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The Lord's Church (2 Corinthians 13:11-13) 2009. 2.8

To celebrate the 23rd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 would like to meditate on what the church established by the Lord is. Paul, who is concluding his letter to the church in Corinth, says that the blueprint of the Lord's church is to form a perfect church (11-13). What should the Lord's church aim for and what is

the driving force to achieve it? First, what is the goal of the church? The goal aimed for in the apostle's blueprint was perfection. Verse 11 says, "...perfect." The word perfect means complete. A perfect church should show three characteristics. 1) Apostolic. Following the apostle is believing and obeying the holy word with one heart. (Ephesians 2:20) The Lord's church is where the apostle's view of the Bible stands.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Only Jesus sent by the Father is eternal life, and that eternal life is revealed in the Word, and by believing in that Word, we know Him and enjoy the abundance of life. That is why we cannot leave the Lord. No matter how far we may be away, those who have tasted that eternal life will come to Him. Therefore, a church cannot be called a church if it does not believe in the Bible, which is the record of the apostles. How many answers are there that say that all religions are good or that everyone should live well? Who is Jesus? I hope that you will clearly understand this and become followers. 2) Holiness. A church that believes in the Bible as the apostles believed is holy. The word holy, Kadosh, means to be set apart. It is in the world but does not compromise with the world, uses worldly culture and civilization but does not place authority on it. It lives its daily life but has a different center. It has different thoughts, tastes, and methods. It was told to greet with a holy kiss. The expressions of the kiss of grace and truth and the kiss of the Son all point to intimate unity. The church is called to achieve this unity, but it must be holy. 3) Heavenly nature, heaven on earth is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The church must become a community that creates heaven in the world before going to the eternal world. The church is where the experiences of the disciples on Mount Transfiguration and Paul in Damascus are. Second, how can we create a perfect church? The apostolic blessing in verse 13 shows

us the method. He promised that the God of love and the God of peace will be with us. It is the promise of Immanuel. (Matthew 28:20) In the high priestly blessing in Numbers 6, grace, peace, and protection were again revealed in the apostolic blessing. I see this as the model of the apostolic blessing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the full armor of God that the saints are fully armed with. The ardent love of the Trinity, shown by the sermon in Luke 15, shows us this power well. The picture shows the beginning, process, and completion of the church very well, and shows that the grace of Christ is power, the love of the Father is power, and the tender hands of the Holy Spirit are power. I pray that you will taste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from this land to fulfill the blueprint of the church that the Lord desires, and that you will humbly rely on the Lord's promise and go forward in faith, knowing that you have no ability.



## 가시를 두신 이유 (고후 12:1-10 ) 2009. 1. 18

바울이 저 천당보다 가시 많은 세상을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많은 세상일지라도 세상에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개인의 가시, 직장의 가시, 건강의 가시, 사회의 가시 등등. 그 중 자기 몸에 만성적으로 찌르는 가시는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사단의 사자가 가시 형태로 바울의 육체를 찔렀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단의 사자를 그대로 남겨두시는가요? 첫째,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7)

이스라엘 2세들에게 반복해서 교육 시킨 것이 겸손이었습니다. 제일 안배워지는 것이 겸손이기에 하나님은 제도적 장치를 두어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교만이 모든 사람의 고질병인 것은 사단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때도 그랬고 은혜 받을 때도 그러했. 만은 악성 바이러스와 같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반역기질입니다. 영혼을 파괴하고 교제를 무너뜨립니다. 38년 병자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욕창, 열, 대소변문제, 탈진 등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죄가 그냥 있나요? 돌아다니며 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이란 가시를 통하여 겸손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라는 겸손한 마음이 은혜의 그릇입니다. 가시를 두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새해, 겸손을 배우는 일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10)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고 가시를 두신 것입니다. 은혜의 지속을 위한 것입니다. 겸손의 그릇이 있으면 능력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을

가시가 만들어줍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입힐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고 하신 후, 주님은 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능력이 머물 수 있는 그릇이 겹손을 만들기 위함 이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 노라하신 주님은 까닭 없는 고난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의 능력을 보십시오. 정통 바리새인으로 헬라세계를 섭렵한 사람이었으나 너무 많은 고난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왜 이런 가시가 많았나요? 바로 그 가시가 천국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 것입니다. 풍부와 빈궁에 처하는 일체의 비 곁을 배우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그 능력을 머물게 했나요? 그를 괴롭히는 가시였습니다. 셋째, 낙원 체험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4) 바울에게 일어난 가시로 겹손한 그릇을 만들어 능력을 머물게 하려는 것이 정적인 은혜라면 동적 은혜, 드러난 은혜, 넘치는 은혜가 바로 세상에서의 낙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삼층천 체험은 감상적인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충족성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충족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열쇠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풍요라는 깨달음이 삼층천을 체험한 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있는 사단의 가시를 인정하고 겹손을 배우고 능력을 체험하며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5절의 예언대로 사탄은 교회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처를 이용 하여 더 큰 승리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Paul chose the thorny world over heaven because he knew the abundant grace in the world. He saw how precious it was that there w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in the world, even in a world with many thorns. How many problems does this world have? Personal thorns, thorns at work, thorns in health, thorns in society, etc. Of these, chronic thorns in one's own body are truly painful. The messenger of Satan pierced Paul's body in the form of thorns. Why does God leave the messenger of Satan in us? First. It is to make us humble. (7) What the second generation of Israel was repeatedly taught was humility. Since humility is the least learned, God set up a system to make us humble. Pride is a chronic disease of all people because it is the sin of Satan. Whether it is when we sin or when we receive grace, it is a rebellious nature like a vicious virus that wants to become like God. It destroys the soul and destroys fellowship. How serious must the 38-year-old sick person have been? How severe must the bedsores, fever, urinary and fecal problems, exhaustion, etc. have been? They say the cause is sin. Is that sin just there? They go around and block it. That is why Jesus taught us humility through the thorn of suffering. A humble heart that says, "Even crumbs are fine," is a vessel of grace. He heals us by placing thorns. I hope you invest in learning humility in the new year. Second, it is to allow power to stay. (10) God placed thorns so that His power could stay. It is for the continuation of grace. If there is a vessel of humility, power will continue. The thorns create that vessel. After telling the apostles to stay in the city until they were clothed with power, why did the Lord allow them to suffer? It was to create a vessel of humility where power could stay.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The Lord said, "I have overcome the world," and said that unnecessary suffering would continue. Look at Paul's power. He was

an orthodox Pharisee who had traveled through the Greek world, but too many hardships tormented him. Why were there so many thorns? Those thorns were to make a vessel that could receive heaven. They taught him the secrets of all things rich and poor. What made his power stay? They were thorns that tormented him. Third, they were to let him experience paradise. (4) If the static grace was to make a humble vessel with the thorns that happened to Paul and to make his power stay, then dynamic grace, revealed grace, and overflowing grace are to experience paradise in the world. Paul's experience of the third heaven was more than sentimental. In a word, he experienced the sufficiency of Christ. To Paul,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It means that only Christ is sufficient. Christ is the key. The realization that Christ is abundant is the confession of one who has experienced the third heaven. I hope that you will acknowledge the thorns of Satan within you, learn humility, experience power, and go to a place where you are satisfied with Christ. As prophesied in Genesis 3:15, Satan will bruise the heel of the church. At that time, we must use that wound to move forward to a place of greater victory.

#### 하나님의 열심(고후 11:1-15) 2009. 1.4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섭리,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셨고 일하시는지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를 삼키는 열심을 가지신 분이시며 성령님도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열심히 일하시는 일곱 영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본 문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거룩한 질투(godly jealousy)"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열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첫째, 거짓 선지자

공격으로 당한 고통에서 생겨났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는 세상 슬로건은 보장할 수 없지만, 주님의 격려는 불행가운데서 새 역사를 이루는 기회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은 어떠했습니까? 1) 다른 예수가 증거되고 있었습니다.(4)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2) 다른 영을 전했습니다. 영(spirit)이란 인격을 가진 실체를 가리킵니다. 성령과 악령으로 구분하는데 여기는 악령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배후에는 악령이 언제나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3) 다른 복음을 믿었습니다. 악령이 노리는 운동은 다른 복음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한 이 단처럼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탄의 목표는 복음을 왜곡시킴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때문에 거룩한 열심이 생긴 것입니다. 둘째, 교회의 성결을 세우려는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사도의 열심은 향방을 잃은 열정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세속적 안녕이 아닌 교회 성결이 그아가는 방향이었습니다. 구약 대제사장의 머리에 "주께 성결"이란 금띠가 두른 것은 교회의 생명은 성결에 있음을 보인 것입니다. 본문에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중매자로 교회를 정결한 처녀로 준비시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시킨다고 비유한 것도 교회의 순결을 강조한 것입니다. 셋째, 자기부터 품어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그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힘썼고, 이웃 앞에서도 바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1) 현실에 성실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폐와 누를 끼치지 않았습니다.(행20:) 2) 성령의 감동에 잠기기를 소원했습니다. 감동이 느껴지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을 따라 나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여 거룩한 능력을 맛본 것입니다. 자기 변화에 주력하는 사람만이  
높고 깊게 그리고 넓게 날 수가 있고 이러한 거룩한 열심이 불이 타오를  
때 주님은 그 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열정을 품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주님 일에 열심을 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God's Zeal (2 Corinthians 11:1-15) 2009. 1.4

Our God in the Bible is a God who works. The Bible says that Jesus is a person with a zeal that devours himself and that the Holy Spirit is the seven spirits who are sent to the whole world and work diligently. In this passage, Paul expressed God's zeal as "godly jealousy." How did the apostle Paul have this passion? First, it arose from the pain he suffered from the attacks of false prophets. The world's slogan, "Turn crisis into opportunity," cannot be guaranteed, but the Lord's encouragement becomes an opportunity to create a new history in the midst of misfortune. What were the attacks of the false prophets like? 1) Another Jesus was being testified. (4) The church accepted the claim that there is another salvation other than Jesus. 2) They preached another spirit. Spirit refers to a personal entity. It is distinguished between the Holy Spirit and evil spirits, and here it refers to the work of evil spirits. Evil spirits always work cleverly behind Satan, the Antichrist, and false prophets. And 3) They believed in a different gospel. The movement that evil spirits aim for is to make people believe in a different gospel. Like this heresy that attacked the church in Galatia, they preached a different gospel. Satan's goal is to destroy the church by distorting the gospel. Because of this confusion, Holy zeal was born. Second, a passion to establish the holiness of the church

arose. The zeal of the apostle was not a passion that had lost its direction, but a zeal directed toward a clear purpose. The holiness of the church, not worldly well-being, was the direction he was heading. The fact that the high priest in the Old Testament wore a gold belt with the words “Holiness to the Lord” on his head showed that the life of the church lies in holiness. In the text, Paul likened himself to a mediator who prepared the church as a pure virgin and married her to Christ, the husband, emphasizing the purity of the church. Third, we must embrace ourselves first. Paul tried to live righteously before God himself more than others, and he also tried to live righteously before his neighbors. Paul worked hard on two things. 1) He was faithful to reality. He did not cause trouble or burden to the church (Acts 20:). 2) He desired to be immersed in the inspiration of the Holy Spirit. He did not do it because he felt inspired, but followed his words before God. At that time, he experienced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and tasted the holy power. Only those who focus on their own transformation can fly high, deep, and wide, and when this holy zeal burns, the Lord is glorified by it. We must go forward with this passion. May this new year be one in which we are inspired by the Spirit of God to live a life of zeal for the Lord’s work according to God’s zeal.

믿음의 담력 (고후11:16-33) 2009. 1. 11

믿음의 담력은 믿음을 가질 때 생기는 능력입니다. 피슈튜오란 말은 신실을 바탕으로 한 것, 즉 떠받쳐 주는 것을 뜻합니다.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기초가 있습니다. 받쳐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일을 해결하고 창조하고 끝까지 잘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도된 증거가 바로 이 믿음의 담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21 절에 나도 담대하리라 30 절에 부득불 자랑하노라고 했습니다. 이 담력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첫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얻어집니다. 산상 보훈에 두 길, 두 문을 말하면서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보여지는 담력에는 1) 빌립처럼 합리적, 이성적 담력이 있고 2) 마가 요한 처럼 감정적 담력이 있고 3) 베드로처럼 의지적 담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 나는대로 지식, 경험, 감정, 자기 고집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바라시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래야만 참 담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영이나 육이나, 진리냐 비 진리냐, 세상인가 하나님 나라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주님과 그의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난을 당할 때 얻어집니다.(23- 28) 좁은 길을 선택한 바울은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23-28절에 수십 가지를 언급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하고, 유대인 태장을 5번이나 맞고, 3번 파선, 여행 중에 강,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형제, 그리고 의식주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좁은 길은 정말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고생을 허락하셨는가요? 고난의



구덩이에서 믿음의 담력이 생산되기 때문 입니다. 연단되어 만들어진 보배로운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생기는 믿음도 있지만 교회의 초석이 되려면 반드시 금 같은 믿음이 생겨나야합니다. 셋째, 교회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울 때 얻어집니다. 29절에 그는 이 고난 외에도 교회를 위해 당하는 중압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고 말합니다. 교회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울 때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우리 영혼에 성령의 진동이 일어날 때 생기는 열매가 믿음의 담력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감사해야합니다. 그럴 때 역사를 만드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담대함이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풍성히 먹고 남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풍성의 실체 이신 예수만으로 만족하는 영적 변화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현실의 난관을 친구로 삼아 믿음으로 감사히 받아들일 때 풍성한 만족을 얻는 자리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The Courage of Faith (2 Corinthians 11:16-33) 2009. 1. 11

The courage of faith is the ability that comes from having faith. The word pisteuo means something based on sincerity, that is, something that supports. It has a basis, a root, and a foundation. What supports it is God and His Word. That faith enables us to solve, create, and do well to the end. When Paul strongly asserted his apostolic authority to the church in Corinth, he made it clear that the evidence of his apostleship was this courage of faith. In verse 21, he said, "I will be courageous too." In verse 30, he said, "I am compelled to boast." How is this courage obtained? First, it is obtained when choosing the narrow path. In the Sermon on the Mount, it says that there are two roads and two gates, and it tells us to choose the narrow path. The courage that is shown

in the life of faith includes 1) rational and reasonable courage like Philip, 2) emotional courage like Mark and John, and 3) volitional courage like Peter. We should not choose the path of knowledge, experience, emotion, and stubbornness according to our own desires, but should choose only the narrow path that the Lord desires. Only then can we possess true courage. We must choose between spirit and flesh, truth and falsehood, the world and the kingdom of God. I hope that you will become men of faith who choose the path of the Lord and His Word in reality. Second, it is obtained when we suffer. (23-28) Paul, who chose the narrow path, suffered so much while walking that path. Verses 23-28 mention dozens of things. He was imprisoned, beaten, almost killed, beaten with a Jewish flag five times, shipwrecked three times, and faced rivers, fellow countrymen, foreigners, cities, wilderness, seas, false brothers, and dangers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during his journey. The narrow path is truly full of suffering. Why did God allow such suffering? It is because the courage of faith is produced in the pit of suffering. God uses the precious faith that has been created through experience. There is faith that is created in an instant, but in order to become the cornerstone of the church, a faith as golden as gold must be created. Third, it is obtained when one fills one's body with the sufferings of the church. In verse 29, he says that in addition to this suffering, the burden of the church that he endured captivated him. When one fills one's body with the sufferings of the church, a faith more precious than gold is created. The fruit that is created when the Holy Spirit vibrates in our souls is the courage of faith. For this, we must be thankful for our present sufferings. Then, faith that creates history is created. That courage not only solves problems, but also brings about abundant results. I hope that we will go to a place of spiritual transformation where we are satisfied only

with Jesus, the true embodiment of abundance. When we accept the difficulties of reality as our friends and gratefully accept them with faith, we will go to a place where we receive abundant satisfaction.

## 사도의 두려움(고후12:1-21) 2009. 1. 25

우리는 사도의 두려움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위를 어려워하고, 존중하고, 공경의 마음이 살아날 때 바로 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그 속에 좋은 교감이 있고, 아름다운 영향이 있고, 놀라운 창조가 생기고, 새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사도는 다툼, 시기, 분냄, 당 지음, 수근거림, 거만, 어지러움이 있을 것과 주께서 낮추실 것과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 산물들인데 셋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첫째, 교회가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의 증거인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제시하면서 속히 그들을 보기 원하였습니다. 그들의 덕을 위하여 디도를 먼저 보내며 부모 심정으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이미 사도 권위가 실추되어 도적맞은 자처럼 된 것은 거짓 교사들의 미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떨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도의 마음과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한 것은 이미 다른 교훈에 물들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하나된 마음은 복음 안에서의 하나 됨을 가리킵니다. 한 마음이 무너질 때 다른 짐을 서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쓴 뿌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 제자들, 가족들을 통해 일 어납니다. 이것이 마귀의 공격루트입니다. 주님 마음과 일치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 서로가 힘써야 합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툼, 시기, 분냄, 당 지음, 수근거림, 거만, 어지러움 즉 교회의 다툼을 두려워하라고 했고, 더러움, 음란함,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분쟁을 두려워하였고 분쟁의 요인이 되는 특징적 죄인 더러움, 음란, 호색에 빠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훈이 잘못되면 세워지는 모든 것이 기형적이 되는 것 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른 교훈에서 시작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세워진 부흥의 본보기입니다. 3000 명이 모일 때도 그러했고 5000명이 모일 때도 그러했습니다. 그때 계속 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행2:43) 고린도 교회 역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은사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거짓교훈에 깊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에누리 하다보니 인간자랑으로 나가게 되어 결국 사람을 위주로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일로 결혼 문제, 성찬문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할 수 없이 심령이 둔해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손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사도인데도 그 두려움을 가진 것을 보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의 손이 역사할 때 됩니다. 이 과정을 무시하고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주님이 일할 때만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Fear of the Apostle (2 Corinthians 12:1-21) 2009. 1. 25

We are living in an age where the fear of the Apostle is needed. I believe that when authority is difficult, respected, and the mind of reverence is revived, it will be right. Because in it, there will be good communication, beautiful

influence, amazing creation, and new history can be expected. The apostle in the text says that he was afraid of strife, jealousy, anger, self-interest, murmuring, arrogance, confusion, and the Lord's humiliation, and that he would not repent of impurity, lewdness, and sensuality. These are all products of not fearing God, and they can be summarized in three. What was he afraid of? First, he was afraid that the church would not be of one mind. He wanted to see them quickly while presenting the apostle's testimony of patience, signs, wonders, and power. He sent Titus first for their edification and wanted to meet them with a parental heart. The fact that the apostolic authority had already been lost and they had become like thieves was because they had fallen from the mind of Christ due to the deception of false teachers. The fact that they were not of one mind with the apostle is evidence that they were already tainted by other teachings. The one heart in the Holy Spirit refers to the oneness in the gospel. When one heart collapses, another house is built. This bitter root occurs most often through the Jews, disciples, and family members who are nearby. This is the devil's attack route. We must strive to have hearts that are in line with the Lord's heart. Second, he feared an unrepentant heart. He said to fear strife, jealousy, anger, factions, murmuring, arrogance, and confusion, that is, strife in the church, and he feared unrepentance from impurity, obscenity, and sensuality. Paul feared strife in the church and feared falling into the characteristic sins of impurity, obscenity, and sensuality that are the causes of strife. Just as everything that is built becomes deformed when the teaching is wrong, the Christian life must begin with the right teaching and follow it. The early church is an example of revival that was established rightly by receiving the teachings of the apostles. It was the same when 3,000 people gathered and when 5,000 people gathered.

At that time, what remained was the fear of God and the fear of sin. (Acts 2:43) How much grace did the church in Corinth receive? It was said that they were not lacking in gifts. However, they failed to use their gifts as gifts and became deeply sick with false teachings. As they neglected the fear of God, they went out to boast about themselves and eventually became a church that was centered on people. This caused problems with marriage, the Eucharist, and conflict. Above all, their hearts became dull and they could not repent. Third, they feared the hand of God. Paul feared the hand of God. He feared what would happen if God humbled him. Even though he was an apostle, he had that fear, which shows that he had a heart that completely trusted in the Lord. It happens when the hand of the Lord works. To ignore this process and believe in sovereignty is to not believe in the hand of God. The history of life is a grace that only happens when the Lord works. Therefore, everyone must fear God.

Complete Salvation Text (Hosea 2:14-23) 2009. 3.1.

The people of Hosea's time, who had economic wealth, turned away from God due to spiritual impurity. Their despair was expressed as great insensibility. When a person is very desperate, they tend to let things be as they are. How can Gomer, who was tempted by fornication, be healed? The Lord, who knew that neither reflection nor her husband's love nor a change in circumstances would do it, would personally save her. (14-17) What is that salvation? First, it is a salvation that God personally accomplishes. In verses 14-15, "I will..." shows God's sole salv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enesis 3:15. This is because complete salvation is only possible when God Himself does it. The prayer of a leper,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is a confession that the Lord is the only Savior. When He said, "I will, be cleansed," she was immediately healed. We must not only overcome the crisis, but also move toward the salvation that has entered the realm of stability, the complete salvation that God Himself accomplishes. Second, it is the salvation that makes us know God. Complete salvation refers to the state of knowing God. Knowing Jehovah is salvation and eternal life (John 17:3). If we do not acknowledge God in all things, cannot give Him, and do not follow His words, it is because we do not know Him (Prov. 3:5-6). Gomer did not know her husband's love, so she pursued another person. When we know Jehovah, our eyes are opened and we understand everything correctly. In order to reach the salvation of knowing God, we must urgently return to the Bible. Third, it is the salvation that brings about fundamental change. God's salvation, which works unilaterally, guarantees three changes: 1) Change of heart (14-15), 2) Change of lips (16-17), and 3) Change of environment (21-22). Israel, which had experienced a certain taste of complete salvation in history, ignorantly opposed the Lord, and salvation was passed on to us, the Gentiles. Now we see this complete salvation in Jesus and go forward in faith. We drink this wonderful spring of salvation every day and testify to the whole world. I pray that you who have received salvation initiated by God will enjoy the kingdom of complete salvation, that is, the kingdom of God, by growing in the knowledge of Him.



온전한 구원 (호2:14-23) 2009. 3.1.

경제적 부유를 가졌던 호세아 시대 사람들은 영적 불결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절망은 큰 둔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아주 절망적이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음행으로 연단된 고멜을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반성으로도 남편의 사랑으로도 안 되고 환경이 변해도 안되는 것을 아신 주께서 친히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4-17) 그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14-15절에 "내가 ...하리라"는 것은 창세기 3:15절의 원리 대로 하나님 의 단독 구원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셔야 완전 한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고 구한 어떤 나환자의 간구는 주님만이 구원주란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즉시 고쳐졌습니다. 우리도 위기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안정권에 들어간 구원 곧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을 향해 나가야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구원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요17:3)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지 못하고 그 분께 드릴 수가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잠3:5-6) 고멜은 자기 남편의 사랑을 알지 못해 다른 대상을 쫓아갔습니다. 여호와를 알 때 우리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성경으로 급히 돌아가야합니다. 셋째,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구원입니다. 일방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3가지 변화를 보장합니다. 1) 심령의 변화(14-15) 2) 입술의 변화(16-17) 3)

환경의 변화 (21-22)입니다. 역사상 온전한 구원의 맛을 어느 정도 보던 이스라엘이 무지로 주를 대적함으로 이방인인 우리에게 구원이 넘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완전한 구원을 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놀라운 구원 샘물을 날마다 마시며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감으로 온전한 구원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Complete Salvation (Hosea 2:14-23) 2009. 3.1.

The people of Hosea's time, who had economic wealth, turned away from God due to spiritual impurity. Their despair was expressed as great insensibility. When a person is very desperate, they tend to let things be as they are. How can Gomer, who was tempted by fornication, be healed? The Lord, who knew that neither reflection nor her husband's love nor a change in circumstances would do it, would personally save her. (14-17) What is that salvation? First, it is a salvation that God personally accomplishes. In verses 14-15, "I will..." shows God's sole salvatio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Genesis 3:15. This is because complete salvation is only possible when God Himself does it. The prayer of a leper,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is a confession that the Lord is the only Savior. When He said, "I will, be cleansed," she was immediately healed. We must not only overcome the crisis, but also move toward the salvation that has entered the realm of stability, the complete salvation that God Himself accomplishes. Second, it is the salvation that makes us know God. Complete salvation refers to the state of knowing God. Knowing Jehovah is salvation and eternal life (John 17:3). If we do not

acknowledge God in all things, cannot give Him, and do not follow His words, it is because we do not know Him (Prov. 3:5-6). Gomer did not know her husband's love, so she pursued another person. When we know Jehovah, our eyes are opened and we understand everything correctly. In order to reach the salvation of knowing God, we must urgently return to the Bible. Third, it is the salvation that brings about fundamental change. God's salvation, which works unilaterally, guarantees three changes: 1) Change of heart (14-15), 2) Change of lips (16-17), and 3) Change of environment (21-22). Israel, which had experienced a certain taste of complete salvation in history, ignorantly opposed the Lord, and salvation was passed on to us, the Gentiles. Now we see this complete salvation in Jesus and go forward in faith. We drink this wonderful spring of salvation every day and testify to the whole world. I pray that you who have received salvation initiated by God will enjoy the kingdom of complete salvation, that is, the kingdom of God, by growing in the knowledge of Him.

본문 2절 시작부터 "논쟁하라"고 하는데 어머니를 꾸짖으라 (rebuke)고 하시는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결혼과 기본적 질서인 가정 권위에 도전하라는 뜻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알려주는 사랑의 탄식입니다. 의사처럼 정확히 진단하고 처방 하여 계속 건강케 하려는 진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탄식하시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첫째, 무엇이 주님을 탄식하게 했습니까? 1) 자극적인 유혹에 끌려가는 것을 보신 것입니다. 5절에 의식주를 보장하는 말로 고멜 을 유혹하여 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삼과 내 기름과 내 술을 주겠다"고 유혹하지만 알고보니 모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8) 인심을 쓰는 것입니다. 음행은 신실성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신실 성(NIV 는 unfaithfulness 이라 함)을 막고 엉뚱한데 마음을 두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모든 시험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신실성이 무너지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철면피가 되어버립니다. 양 심을 벗어나 욕심을 따름으로 선한 양심을 잃었기 때문에 미신과 외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방인은 미신, 유대인은 외식의 굴 레에서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보장을 한다 해서 선불리 뛰어 들지 말아야합니다. 2) 위험수위의 죄악을 보신 것입니다. 유혹의 목표는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하는 일입니다. 본문에도 자녀를 통해 책망 받는 부모, 얼굴과 유방 사이에 음행이 흘러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탄식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비를 구하기 전에 먼저 제단을 수축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비가 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과 죄 때문에 탄식하는 주의 소리를 듣고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치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탄식한  
 깊이만큼 우리 를 사랑하셨고 완벽한 치료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비상수단을 통한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3절 에 벌거벗겨 광야로 내 몰아 목말라 죽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6절에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 길을  
 찾지 못하 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시와 담을 두어 위기를  
 막으시려는 것 입니다. 10-12절에 하나님이 수치를 당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들이 사랑하던 것으로 부끄러움을 당케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후온 난화, 경기침체, 전쟁 위협, 불치의 병 특히, 정래를  
 예측 못하는 영 적 혼란의 가시채를 두심으로 죽은 사자 보다 산 개로  
 살아가며 부 스러기라도 좋다는 가난한 심정을 가질 때 참 소망이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여 정상궤도로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탄식 에 응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The Lament of the Lord (Hosea 2:2-13) 2009. 2.22

From the beginning of verse 2 of the text, it says, “Argue,” and it is a word  
 that says to rebuke (rebuke) your mother. It does not mean to challenge the  
 most beautiful marriage and the basic order of family authority, but it is a  
 lament of love that tells us about passionate love in a provocative way. It is  
 the truth that God wants to diagnose and prescribe accurately like a doctor and  
 continue to make you healthy. Why does God lament and how does He heal?  
 First, what made the Lord lament? 1) He saw her being dragged into  
 provocative temptation. In verse 5, He tempted Gomer with words that

guaranteed food, clothing, and shelter and led her to fornication. "I will give you my bread, my water, my wool, my flax, my oil, and my wine," they tempt, but it turns out that they are all using God's things (8) and using human nature. Fornication is the destruction of sincerity. The devil's goal is to satisfy God's love, block sincerity (NIV calls it unfaithfulness), and make you focus on the wrong things. This is the goal of all temptations. When sincerity is destroyed, you seem to be free, but you become shameless. You lose your good conscience by following your desires out of your conscience, and you become a person of superstition and hypocrisy. Gentiles are miserable in the shackles of superstition, and Jews are miserable in the shackles of hypocrisy. You should not jump in rashly just because you are given some kind of guarantee.

2) You have seen the sins of a dangerous level. The goal of temptation is to make you become a person of the devil by committing sin and living a life separated from God. In the text, God laments when he sees parents being rebuked by their children and seeing fornication flowing between their faces and breasts. Why did Elijah repair the altar before asking for rain? Because if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not right, even if it rains, the problem will not be solved. We must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who laments because of temptation and sin and respond with repentance. Second, how did He heal us? God loved us as much as we lamented and prepared everything for perfect healing. What is it? In a word, He prepared salvation through emergency means. In verse 3, He warned that He would drive us naked into the wilderness and make us die of thirst. In verse 6, He said that He would block the way with thorns and build a wall so that we could not find the way. He was trying to block the crisis by putting thorns and a wall. In verses 10-12, God said that He would put them to shame. He would make them put to

shame what they loved. Climate change, economic recession, threats of war, incurable diseases, especially the thorns of spiritual confusion that cannot predict the future, so that we can live like living dogs rather than dead lions and have a poor heart that would rather be broken, God has given us true hope. I pray that you will repent and return to the right track and respond to God's lament of love.

## 하나님의 사랑 (호1:1-11) 2009. 2. 8.

경기 침체로 고생하는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에게 진정 한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 즐거워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사랑할 때 현실의 문제가 쉽게 풀려질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진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2-3절에 보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에스트 제누님- 음란한 성격의 여인)와 결혼하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음란한 이스라엘을 일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적절한 지혜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만드시는 분이 아니 시며 죄를 벌하시는 거룩한 분이란 사실입니다. 이 독특한 명령 배후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리시려고 호세아와 그의 가정을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고멜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일지라도 하나님은 부부의 연합으로 회복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안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둘째, 임하신 사랑입니다. 유다의 영적부흥과 이스라엘의 경제적 부흥의 양 흐름 속에서 활동한 호세아 선지시대는 맞춰 우리대와 우수 후니다, 세계서교 교부 합성 조정 적 불경기가 맞물려 돌아가는 현대의 긴장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먼저 선지가가 받게 하고(1) 그 사랑을 백성에게 전하셨습니다. 행동하는 사랑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셋째, 치료하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임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놀라운 치료를 받습니다. 고멜의 반복적 음란 행위까지도 책임지며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치료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놀라웁게 일하고 있습니다. 바람피우기에 익숙한 아내를 다시 데려와 음란을 제하는 완전한 치료는 율법의 차원을 뛰어 넘어 한 없이 용서하는 복음적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주받은 이스라엘을 영광의 이스라엘로, 루하마를 루 하마(내 사랑)로, 로암미를 암미(내 백성)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2:1) 그 사랑으로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품으로 즉시 달려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 받으시기 축원합니다.

God's Love (Hosea 1:1-11) 2009. 2. 8.

The true comfort to the church standing in the midst of a world suffering from economic recession is God's love. I believe that when we receive that love and rejoice and love the world with that strength, the problems of reality will be easily solved. What kind of love is shown through the book of Hosea? First, it is unconditional love. In verses 2-3, Hosea is told to marry an adulterous woman (est je nunnim - a woman with an adulterous personality). This is God's appropriate wisdom to awaken Israel from spiritual adultery. It is clear that God is sinless, does not create sin, and is a holy being who punishes sin. Behind this unique command, God used Hosea and his family to make known God's great love. Even though Israel was as corrupt as Gomer, God would restore them through the union of the couple and create a new history. He embraced Israel, whom he had once chosen, with unconditional love. This is the power of the church. Second, the love that came. The era of the prophet Hosea, who worked in the midst of the two currents of the spiritual revival of Judah and the economic revival of Israel, coincided with our era and the

world's church fathers' synthesis, and God sent His word to us, who are living in the midst of the tension of the modern era where the recession is intertwined with the economic recession. He first had the prophet receive the word of love (1) and then conveyed that love to the people. Love that acts comforts us. Third, the love that heals. Anyone who receives that unconditional love receives amazing healing. Just as He showed His love by taking responsibility for Gomer's repeated sexual immorality and forgiving her, God's healing is still working amazingly toward us today. Bringing back a wife who was used to cheating and completely healing her by removing her fornication goes beyond the level of the law and shows the gospel love that forgives infinitely. It is to change the cursed Israel into the glorious Israel, Ruhamah into Ruhamah (my love), and Lo-Ammi into Ammi (my people). (2:1) I hope that you will immediately run to the amazing loving arms of our God who came to you with that love and solve your current problems.

## 종말의 은총 (호3:1-5) 2009. 3. 8.

많은 사랑을 받아 온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또 다른 남자와 같이 살 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열 다섯개의 은과 보리 한 호텔 반을 값을 주고 데려와 다시는 음행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역설적 표현입니다. 5절에 "그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 다윗을 찾으 며,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총 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약속된 종말의 은총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은총, 은혜란 일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선물로 하나님의 호의를 가리킵니다. 특별 은혜인 성경을 알면 하나님의 빛 아래서 자기의 광명을 봄 으로 모든 것의 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모든 은혜가 왔고 오고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4절에는 바벨론 포로생활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 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과 드라도 없는 공백기를 주신 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정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때를 주시는가요? 성경의 하나님만이 은혜임을 알 게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경외성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종말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은총에 나아간다"고 했습니다.(5) 이 경외성 회복이 은혜를 바로 받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 고 사랑하는 성품을 갖던 사람이 죄로 인해 엉뚱한 것을 두 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두려워하고, 허무를 두려워하 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 하게 되었습니다. 하 나님은 이 경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총동원시 키십니다. 고난과 갈등과 기적을 통해 경외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셋째, 그것은 종말의 은총입니다. 마지막시대에 부어주시는 은혜 곧 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바벨론에서의 회복이나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성령의 은혜입니다.(갈3:14) 최대 은혜가 부어지는 이 때에 에스겔 환상의 강수가 심령에 흘러 넘쳐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현재 불황의 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하는 절호의 기회인줄 믿고 입을 넓게 열어 주께 부르짖어 종말의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Grace of the End (Hosea 3:1-5) 2009. 3. 8. When Gomer, who had been loved by many, lived with another man despite Hosea's love, Hosea paid fifteen pieces of silver and a hotel and a half of barley to bring her back and advise her not to commit adultery again, in accordance with God's command to "love the woman who has become a prostitute by being loved by another man." This is a paradoxical expression showing God's love for Israel, who had turned away from God and was serving idols in an adulterous manner. Verse 5 says, "After that, Israel will return and seek David, and in the last days they will fear the Lord and turn to the Lord and to his grace." What is the grace of the end promised through Hosea? First, its source is God. Grace, grace refers to God's favor as a gift given without work. If you know the Bible, which is a special grace, you will see your own light under the light of God and come to know the true meaning of everything. Only from God all grace has come, is coming, and will come. Verse 4 says that during the Babylonian captivity, there was a gap period without a king, a leader, a sacrifice, a lord, an ephod, and a drapery. It means that he gave a political situation like the time of the judges. Why did he give such a time? It was to let us know that only the God of the Bible is grace. Second, it is the restoration of reverence. Hosea said, "In the end, we will approach grace by fearing the Lord." (5) This restoration of reverence is receiving grace. People who originally had a nature of fearing and loving God began to fear strange things because of sin. They began to fear nature, fear vanity, fear material things, and fear the world. God mobilizes everything to restore this reverence. He restores reverence through suffering,

conflict, and miracles. Third, it is the grace of the end. The grace that is poured out in the last days is a blessing. What Israel received was the restoration from Babylon, but for us who are in the gospel, it is the grace of the Holy Spirit (Gal 3:14). At this time when the greatest grace is poured out, I pray that the rain of Ezekiel's vision will overflow in our hearts and that the work of evangelizing the whole world will take place. I believe that the current economic recession is the best opportunity to greatly experience God's grace, so I hope that you will open your mouth wide and cry out to the Lord so that you can fully enjoy the grace of the end times.

##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호4:1-19) 2009. 3. 15.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뿌리가 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세를 통해 보인 신명기 28장의 두 가지 약속,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가나안 속에 서도 뽑아 버리는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신대로 그들 장래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석장에 걸쳐 이스라엘의 실 패는 고멜의 은행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성실한 태도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본문에도 죄악상을 또다시 보여주면서 본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아는 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1,6,2:20) 어떻게 이 신지식을 회복할까요? 첫째, 자기의 죄악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1) 우 상숭배로 나타났습니다.(13)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다고 했습니다. 2) 윤리부재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단절로 나타 난 현상인데 가정, 사회의 윤리 도덕에 기준을 잃은 것입니다. 2절에 보이는 저주, 속임, 살인, 간음, 포박이 극에 달함은 십계명의 금하는 모든 죄가 살아 움직이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람 속에 있는 "탐욕. 욕, 욕심, 자아"에서 나옵니다. 3) 영권 상실입니다. 지도자인 제사장이나 선지자 역시 한통이 된 것입니다.(5) 4) 그 결과 자연의 부조화가 생겼습니다. 산의 짐승과 바다의 고기가 없 어지고 번성을 제하시고 영화를 욕으로 바꾸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그 뿌리는 신지식 결핍에 있었습니다. 열매는 언제 나 그 나무의 뿌리와 관계됩니다. 인애와 진실이 없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생긴 열매입니다. 신지식이 없으면 복의 알맹이인 "영성, 경건, 경외성" 을 상실하게 된 어 있습니다. 반면에 신지식이 풍성할 때 이 모든 것이 사라 지고 새로운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셋째, 이 지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두 가지를 암시합니다. 1) 성경에 착념해야 합니다. 율법, 선지자가 밤에 넘어지리라는 말씀은 성경에 착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기도의 불을 붙여야 합니다. 기도는 신지식을 소유하는 중요한 채널입니다. 말 같지 않아도 그 분께 나가 대화하다 보면 교감이 생기고 마음이 감동되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역사는 달라집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을 얻는 최상의 길인 하나님 아는 일에 마음을 쏟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찾는 성도 (호5:1-15) 2009. 3.22.

외식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번성한 에브라임의 죄였으며, 바리새인의 죄악이었고 현대 신자들의 특징적인 죄악입니다. 그 외식이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여 저주를 불러 온 것입니다. 이 외식(히포크리노마이)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데 있습니다.(15) 우리 시대의 소망의 마지막 보루인 교회는 세상 죄 때문에도 고민하지만, 더욱이. 양심에게 마비시키 과의식을 털 제하는을까요, 힘써야 합니다. 어 첫째, 기다리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원수 사랑을 비교시켜 에브라임 마음에 질투심을 불러 일으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며(계 3:20), 인내로(아5:2) 완벽한 치료를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분을 주목하는 일입니다. 낮. 밤을 잠깐 쳐다본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고 주목할 때 살아 납니다. 간음하다 붙들린 한 여인의 불안 초조한 마음일지라도 주님을 주목할 때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이 서로 만나 대화하는 그 순간이 주님을 주목하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주님을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은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본문에 |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마비는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죄가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회개에는 양면을 갖습니다. 1)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과 (요일1:9) 2) 믿는 일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뉘우치고 후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쪽도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양심을 통해 마귀는 고소합니다. 고백했다고 금방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속이는 것이냐고 마귀는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믿을 때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간절히 찾아야합니다. 회복의 역사는 주님을 찾을 때 성취됩니다, 그 때까지 주님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고 하셨습니다. 앞서 말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의 완벽 한 회복을 위해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 함이란 진실을 가리킵니다. 이 진실의 회복은 양심 기능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날 때 받은 선한 양심의 기능이 살아날 때 진정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외식으로 어두워진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선한양심의 기능을 활발히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할 것입니다.

Let Me Know God (Hosea 4:1-19) 2009. 3. 15.

God's discipline toward His people is deeply rooted. Before entering Canaan, their future wa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two promises made through Moses in Deuteronomy 28: if you obey, you will be blessed, but if you disobey, you will be cursed and uprooted from Canaan. We have already seen in three chapters that Israel's failure was due to their unfaithful attitude toward God's word, like Gomer's adultery. In the text, the image of sin is shown again, and in order to return to the original state, God said, "Restore the knowledge of God" (1, 6, 2:20). How can we restore this new knowledge? First, we must examine our own sins. Israel's sins were 1) idolatry. (13) Verse

17 says that they joined forces with idols. 2) It was manifested by the lack of ethics. This is a phenomenon that was manifested by the separation from God, and it is the loss of standards for ethics and morals in the family and society. The extreme cursing, deception, murder, adultery, and cruelty shown in verse 2 are a society where all the sins prohibited by the Ten Commandments are alive and moving. Where does this sin come from? It comes from “greed, flesh, flesh, and ego” within people. 3) It is the loss of spiritual authority. The leaders, priests and prophets, also became one. (5) 4) As a result, disharmony in nature occurred. He warned that the beasts of the mountains and the fish of the sea would disappear, and that he would change prosperity into shame. Second, the root was in the lack of new knowledge. Fruit is always related to the roots of the tree. The absence of love and truth is the fruit that comes from the lack of knowledge of God. Without new knowledge, we lose the kernel of blessing, “spirituality, piety, and awe.” On the other hand, when new knowledge is abundant, all of these disappear and new fruits are produced. Third, what should we do to obtain this knowledge? It suggests two things. 1) We must focus on the Bible. The words that the law and the prophets will fall in the night mean that we must focus on the Bible. 2) We must light the fire of prayer. Prayer is an important channel for possessing new knowledge. Even if it doesn’t sound like words, if we go out and talk to Him, we will have a connection, be moved, and come to know God. When we know God, history changes. I hope that you will devote your heart to knowing God, which is the best way to gain hope in a place of despair. Saints Seeking the Lord (Hos 5:1-15) 2009. 3.22.

Hypocrisy was the sin of Ephraim, who was materially rich and prosperous, the sin of the Pharisees, and the characteristic sin of modern believers. This

hypocrisy killed Jesus, rejected God's love, and brought about a curse. The only way to survive from this hypocrisy (hypocritinoma) is to earnestly seek God. (15) The church, the last bastion of hope in our age, is troubled by the sins of the world, but moreover. Should we try to rid ourselves of the over-consciousness that paralyzes our conscience? First, we must remember the Lord who is waiting. God, who is trying to arouse jealousy in Ephraim's heart by comparing God's love with the love of his enemies and to turn back, prepares everything (Rev 3:20) and waits patiently (Song 5:2) for a perfect healing. So when our conscience is paralyzed, the best thing we can do is to remember God. Pay attention to Him. Bronze. When we remember and pay attention to the Lord, just as we looked at the snake for a moment, we come alive. Even the anxious and restless heart of a woman caught in adultery was completely healed when she paid attention to the Lord. The moment the woman and Jesus met and talked was the perfect opportunity to pay attention to the Lord. Meeting the Lord individually is an opportunity to receive precious grace. Second, \_repent. In the text, it says | repent your sins and seek the face of God. The paralysis of conscience requires repentance that repents your sins. In other words, sins must be resolved. Without repentance, sins are never resolved. Repentance has two sides. 1) Acknowledging and confessing sins (1 John 1:9) and 2) believing. Just like the two sides of a coin, repenting and regretting alone is not enough. This is not even half. We must believe that the Lord died because of our sins. The devil accuses us through our consciences. The devil whispers that it is a deception to say that we are free of sins right away just because we confessed. However, the Holy Spirit tells us to believe in the Word. This is because it is only resolved when we believe in the Lord. Third, we must seek Him earnestly. The history of recovery is

accomplished when we seek the Lord. Until then, the Lord said that He would return to His place. It is to earnestly seek the Lord for the complete recovery of the person who has gone forward with the heart of repentance mentioned above. This earnestness refers to the truth. This recovery of truth refers to actively awakening the function of the conscience. When the function of the good conscience received at the time of rebirth comes alive, it becomes true healing. In order to save this age that has become dark due to hypocrisy, we must go to the place where we form the image of God by actively activating the function of the good conscience.

## 치료하시는 하나님 (호6:1-11 ) 2009. 3. 29

본문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치료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뚜렷히.. 계시합니다.(1) 요한복음 14:6절의 "그 길, 그 생명, 그 진리란 말에 치료자라는 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절대 치료자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올상일 때나 만성적 질병으로 악순환이 계속되는 때라할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려야합니다. 첫째, 치료의 필요성.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켜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한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언약 파기 자에 대한 댓가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혹독한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수 났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소생될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인류는 누구든지 치료가 필요한 환제니다 한정적 정보에 놓지 제 곳로 얼마나 배도 산타이 습니까? 바디메오 처럼 분명한 소원과 목적과 믿음(인내)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치료의 방법.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치료 하시는데 선지자들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1) 하나님이 친히 치료하십니다. 치료를 위해 새벽빛,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임 하여 치료하십니다.(3) 주님의 별세를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별세의 유익은 주님의 하신 일을 계승하며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여 주님 영광에 동참케 하려는 것이라 하십니다.(요 14:1-6) 2) 선지자의 말을 통해 치료하십니다. 선지자인 성 경을 통해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으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바로 전하는 종들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십니다.(요15:5) 3) 기도를 통해 치료하십니다. 주 님은 다 준비하시고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1)

기도하면 반드시 치료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태양이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그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나오기만 하면 즉시 풍성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성령 보혜사는 그 치료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셋째, 치료의 결과(6). 어떤 치료의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본문에서 셋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사랑의 사람으로 치료 하십니다.(6) 2)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치료하십니다.(6) 3) 부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2) 성령이 오신 이 시대는 치료의 능력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모든 치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것을 알고 지금 치료의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God who heals (Hosea 6:1-11) 2009. 3. 29

The text clearly reveals that the only healer of His people, Israel, is Jehovah God. (1) In John 14:6, the words “the way, the life, the truth” can be used to describe the word healer. The absolute healer is the Lord. Even when the economy is not good and we are depressed or when chronic illness continues in a vicious cycle, we must wait for God’s healing. First, the need for healing. Verse 7 compares the sin of Israel to breaking the covenant like Adam. The price for breaking the covenant is a harsh death, “In the day that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What kind of death is that? It was caused by separation from God. People could not be revived without healing. Because of Adam’s sin, all of humanity needs healing. Do you not put it in limited information? Bartimaeus Please come to the Lord with a clear desire, purpose, and faith (patience) and pray. Second, the method of treatment. How did He treat? God treats, and He treats through the prophets. 1) God Himself treats. He comes to heal like the light of dawn, the early rain, and the late rain. (3) He tells the

disciples who feared the Lord's departure that the benefit of the departure is to succeed the Lord's work and do greater work than the Lord so that they can share in the Lord's glory. (John 14:1-6) 2) He treats through the words of the prophets. He treats through the Bible, the prophets, by rebuking, teaching, correcting, and educating in righteousness. And God Himself works through the servants who convey the Bible correctly. (John 15:5) 3) He treats through prayer. The Lord invites us to come after preparing everything. (1) If we pray, we will definitely receive treatment. Christ, the Sun of Righteousness, is still emitting rays of treatment, and if we come to Him in prayer with His word, He will immediately and abundantly treat us. The Holy Spirit, the Counselor, is You came for healing. Third, the results of the healing (6). What results of the healing came? You can find three in the text. 1) He heals as a person of love (6). 2) He heals as a person who knows God (6). 3) He lets you experience the power of resurrection (2). This era when the Holy Spirit came is a time when the power of healing is actively occurring. Knowing that all healing occurs when you pass through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please go to the Lord of healing now.

수욕 받은 예수 십자가 (요18:12-27) 2009. 4.6.

수욕이란 수치, 모욕, 고난, 창피함을 가리키는 말로서 십자가를 대변할 용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이 역사상 최대 의 수욕이란 것은 마귀의 시험과 함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여 성부가 허락하신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자는 겿세마네 동산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모진 공격을 통해 미쳤다, 정신 이상 자다, 마귀의 종이다, 죽어야할 사랑이다. 등의 모함과 참기 어려 운 고난을 당하셨고 잡히자마자 곧이어 안나스에게 가서 심문을 받 으면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진 수욕을 당하셨습니다. 첫째. 대제사장이 주는 수입니다. 거짓 대제사장이 감히 참 대 제사장을 심문하는 수욕으로 완전한 모욕입니다.(12-14) 예수님은 천상의 재판장이십니다. 천상에서 온 인류의 개인 개인을 재판하는 심판자이신데 일개 거짓 중의 거짓 제사장에게 심문을 받으니 얼마 나 참기 어려운 광경인가요?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12명되는 천사 가 와서 이들을 다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런 분이 신분에 대한 공격을 당하십니다. 주를 위하여 신분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참는 자리까지 나가야합니다. 신분 때문에 당하는 모욕을 참은 사도들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한 종이 주는 수욕입니다. 22절에 보면 심문을 받는 중에 한 군병이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무시 경멸하는 체형이었습니다. 피 조물이 창조주를 때렸으니 손이라도 말라 버릴 것 같은데 주님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찌르는 수욕을 견디기 위하여 자 신을 주님처럼 하나님께 위탁해야합니다. 구약의 위대한 모세와 엘 리야도 주님처럼 수모를 당하면서 견디려 했으나 주님처럼 아버지 의 뜻을



세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욕을 참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가 주는 수욕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처럼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가 배은망덕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잡혀 있고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여중 앞에서 "나는 그를 도무지 모 르겠노라" 고 말합니다.(25-26) 이 여중은 말고의 친척으로 베드로 는 그 시험에 넘어져 주님이 큰 수욕을 당케 하신 것입니다. 남편. 아내, 교회의 동료 등, 가장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 올려오는 수욕 을 참아야합니다. 읊처럼 발꿈치를 무는 수욕이 몰려올 때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어야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 할 때 베드로는 회개했고 새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십자가는 수입니다. 모든 수욕을 참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 거기에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참 대제사장의 실체가 드러났 고 베드로 같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산 살이 된 것입니다.

Jesus' humiliation on the cross (John 18:12-27) 2009. 4.6.

Humiliation refers to shame, insult, suffering, and embarrassment, and can be said to be a term that represents the cross. The reason Jesus' path to the cross was the greatest humiliation in history is because it was a suffering permitted by the Father to save His people along with the devil's temptation. The Son had already been called crazy, insane, a servant of the devil, and a love that must die, not only in the Garden of Gethsemane, but also through the Jews' fierce attacks. He suffered from false accusations and unbearable suffering, and as soon as he was arrested, he was immediately taken to Annas for interrogation and suffered various severe insults, such as being cut with a sword. First, the insult given by the high priest. It was a complete insult, as a

false high priest dared to interrogate the true high priest. (12-14) Jesus is the judge of heaven. He is the judge who judges each and every individual of mankind in heaven, so how unbearable must it be to be interrogated by a false priest among false ones? He has the power to have twelve legions of angels come and bind them all if he prays even now. Such a person is being attacked for his status. He must go to the place where he endures the insults he suffers because of his status for the Lord. He must follow the example of the apostles who endured the insults he suffered because of his status. Second, the insult given by a servant. In verse 22, a soldier hits Jesus while he is being interrogated. He had a body that was contemptuous and despised. The creature struck the Creator, so that even his hand would wither, but the Lord suffered it. In order to endure the specific insults, we must entrust ourselves to God like the Lord. The great Moses and Elijah of the Old Testament also tried to endure the insults like the Lord, but they were not enough to establish the Father's will like the Lord. However, the Lord saved his people by enduring the insults. Third, the insults given by Peter. Just as the saying goes, "the axe of faith cuts off the instep," Peter, who was the chief disciple, is being ungrateful. While the Lord was arrested, Peter, who had been following from afar, says in front of the servant girl, "I never knew him." (25-26) This servant girl was a relative of Malchus, and Peter fell in the test, causing the Lord to suffer great insults. We must endure the insults that come through those closest to us, such as our husbands, wives, and church colleagues. Like Job, when the insults that bite our heels come, we must think of the Lord and endure them. When the Lord treated him with pity, Peter repented and was transformed into a new person. The cross is a symbol. When we walk the path of the Lord who endured all humiliation, a new history is made there. The true

nature of the high priest was revealed, and it became the living flesh that created great people like Peter.

## 겸손의 형상 (속9:9) 2009. 4.5.

하나님, 하나님나라의 왕, 하나님 아들, 창조자, 심판주, 섭리주.

구원주이신 예수께서 신분에 맞지 않게 뒤뚱이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심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고이 간직해야 할 계시의 그림입니다. 주전 460년 전 스가랴 선지자는 그 사건을 미리 알고 "그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겸손이 구속을 성취하는 절대 도구라는 것입니다. 겸손만이 하나님나라의 모든 일의 기초가 되며 그 나라 백성인 모든 신자의 근본 성품이며 그리고 하나님나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왜 겸손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까? 첫째, 겸손에서 겸손으로 나가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유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은 모든 겸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들레지도 않고 떠들썩하지도 않게 합니다. 교만하면 좁은 생명의 길이 안 보입니다. 의를 담은 겸손이 구원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만을 알고 보니 말씀이 머물 장소가 없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요8:37)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손이라는 진단입니다.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의 옥토만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겸손의 형상으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 형상의 요점은 한마디로 겸손입니다. 겸손만이 진실, 의, 거룩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먼저 겸손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해 집니다. 교만하면 외식하게 되고, 불의로 쉽게 나가게 되고,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화작용을 일으키므로 어디에나 요긴하게 쓰이는 약방의 감초처럼 겸손히 살면 겸손의 성품을 이루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은 원하면서도 땅 차지하는 방법을 무시합니다.(마5:5) 얼마나 이상한가요? 셋째, 겸손의 왕관을 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은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끝에는 천사처럼 왕 노릇 하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겸손하면 왕이 된다고 했습니다.(딤후 2:11-13) 겸손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공로로 된 것이지 자기 밑천이 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스랍처럼 될 것입니다. 신속 한 섬김. 각기 두 날개로 발과 얼굴을 가리고, 남은 두 날개로 날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겸손의 왕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할 것입니다. 겸손의 거인이 되어 그 그늘 아래 새 들이 쉬어 갈 수 있게 합시다. 스가랴 이상 중 붉은 말을 타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자(슥1:7-8)가 바로 어린 나귀 타신 주님과 한 짝입니다. 낮아지신 분이 높아지실 분임을 보인 것입니다. 불황 속에서 맞는 종려주일, 주님의 겸손의 본을 마음에 깊이 새겨 나 자신이 그 본을 따라 어린 나귀를 타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은혜가 머물 것입니다.

The Image of Humility (Zec 9:9) 2009. 4.5.

God, the King of the Kingdom of God, the Son of God, the Creator, the Judge, the Providence. The image of Jesus, the Savior, riding on a young donkey that was not befitting his status, is a picture of revelation that all Christians should

treasure in their hearts. The prophet Zechariah, 460 years before Christ, foresaw this event and prophesied, “He will be humble and ride on a young donkey.” Humility is the absolute tool for achieving redemption. Humility alone is the foundation of all things in the Kingdom of God, the fundamental character of all believers who are the people of that Kingdom, and also a vessel that can contain the grace of the Kingdom of God. Why should we focus on the humble Lord? First, because it is a salvation that goes from humility to humility. The birth of the manger, life, death, resurrection, ascension, and second coming were all done with humility. It does not make noise or fuss. If you are arrogant, you cannot see the narrow path of life. Because humility containing righteousness is the essence of salvation. When you know the arrogance of the Jews, it is because there is no place for the word to stay. (John 8:37) It is a diagnosis that they are not descendants of Abraham but descendants of the devil. Those who do not receive the word do not know this salvation. This is because only the earth of humility can receive the word well. Second, because it is made in the image of humility. The essence of the image of God, which is the purpose of salvation, is humility in a word. Only humility is a vessel that can contain truth, righteousness, and holiness. If you are not humble first, this becomes impossible. If you are arrogant, you become hypocritical, easily fall into unrighteousness, and cannot achieve holiness. Because it has a neutralizing effect, if you live humbly like licorice, which is used everywhere, you will achieve the character of humility and win. People want the land but ignore the method of taking it (Matthew 5:5). How strange is that? Third, because you will wear the crown of humility. It is the work of a king to give justice and salvation. At the end of salvation, you will reign like an angel. It is said that if you are humble like the

Lord, you will become a king (2 Timothy 2:11-13). You will become a king of humility. It is because it is the Lord's merit and there is nothing of your own. You will become like a seraphim. Swift service. Each will cover their feet and face with two wings and fly with the remaining two wings, praising the Lord. You will wear the crown of humility and reign with the Lord in life. Let's become giants of humility so that birds can rest under their shade. In the vision of Zechariah, the one riding a red horse and standing among the myrtle trees (Zec 1:7-8) is the Lord riding a young donkey. It shows that the 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exalted. On this Palm Sunday in the midst of economic depression, if we engrave the example of the Lord's humility deeply in our hearts and follow that example and go forward with the mindset of riding a young donkey, grace will surely remain.

진정한 평강은 두 가지를 갖출 때만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화목입니다. 천군천사의 찬양,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들 중의 평화로다" 에서 참 평강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들기 위 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모든 화목을 깨는 장애물을 다 제거하시고 그 증거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축원하신 것입니다. 죽으심이 화목을 막는 모든 죄를 처리한 근거 가 되었다면 부활은 이 화목을 교회에 적용하고 그 열매를 맛보게 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건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라는 인사는(19-31) 인사 치레가 아니라 부활이 안겨주는 모든 복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죄 사함의 평강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죄를 완전 히 처리하신 증거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죽으심의 효능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잠자는 자도 망하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죄 사함을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13) 중풍병자의 근본치료가 죄였기에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 후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 어가라 할 때 온전하게 된 것은 주님 부활이 죄를 사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 세상 죄는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죽음의 공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해결



받지 못합니다. 구석 구석 부활의 위로와 사랑이 묻어있음을 알고 이 평강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령 받을 때 평강을 얻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성령을 지금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성령이 제외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 위하여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평강이 찾아오고 그래야만 평강을 빌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 전도자에게 임하는 평강입니다.(21) "아버지가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고 하셨습니다. 일찍이 70인 전도대에게 주신 사명이 평안을 비는 것이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도 성부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구원 곧 화목, 평강을 빌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안을 막는 거머리 자매처럼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부활의 평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능력은 지금도 평강으로 계속됩니다. 이 평강을 믿음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강력을 믿고 나갑시다.

Peace of Resurrection (John 20:19-23) April 19, 2009 True peace is obtained only when two things are present. One is reconciliation with God and the other is reconciliation with people. In the praise of the angelic host, "Glory to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we can see that true peace is not something that people create, but something

that God Himself creates. In order to create this peace, God sent His only Son and gave Him up on the cross. And after three days, He resurrected, removing all obstacles that break reconciliation, and as evidence, He appeared to His disciples and blessed them with peace. If death was the basis for dealing with all sins that hinder reconciliation, resurrection was the basis for applying this reconciliation to the church and allowing them to taste its fruit. The resurrected Jesus' greeting to his disciples, "Peace be with you" (19-31), is not a greeting, but a summary of all the blessings that the resurrection brings. What kind of peace does the resurrected Lord give? First, it is the peace of sin. The resurrection is the evidence that He has completely dealt with sin, the greatest problem of mankind. If there had been no resurrection, the effect of death would not have occurred. Faith is futile, we are still in sin, and those who sleep are perished and have become the most miserable people in the world. That is why the Lord sent His apostles to tell them about sin (13). Since the fundamental cure for the paralytic was sin, He proclaimed the matter of sin. When He said, "Your sins are forgiven you," and told him to take up his bed and walk, he was made whole, which shows the evidence that the Lord's resurrection forgives sin. None of the sins of this world can be resolved without passing through the merit of Christ's death. Knowing that the comfort and love of the resurrection are buried in every corner, I hope you will claim this peace. Second, the peace that the Holy Spirit gives. The peace that we receive when we receive the Holy Spirit is because of the Lord's promise to send another Comforter. This is the first command that the resurrected Lord gave to the apostles: receive the Holy Spirit now. The Lord's work has never been done without the Holy Spirit. Therefore, the saints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must humbly seek to follow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hen we follow the Holy Spirit, peace comes, and only then can we pray for peace. Third, the peace that comes to the evangelist. (21)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Just as the mission given to the 70 evangelists was to pray for peace, the resurrected Lord was sent by the Father to pray for salvation, that is, for reconciliation and peace. The disciples were able to experience the peace of resurrection when they sought God's glory in a world full of problems, like the sisters who block peace. The event of the Lord's resurrection happened 2,000 years ago, but its power continues as peace even now. Let us trust in the Lord of resurrection to possess this peace with faith. And let us go forward believing in the power of resurrection.

Let us call upon the Lord with sincerity (Hosea 7:1-16) 2009. 4. 26

Just as a doctor reveals the illness through observing symptoms when treating a patient, when God judged Ephraim and Judah, their illness was revealed. Jehovah pointed out that Israel's problem was simply a problem of the heart. "They did not call upon me with sincerity" (14). Here, He showed us where all illnesses arise. First, the reality of a sick heart, even if we create a human genome that informs us of illness information in order to prevent individual illnesses in advance, there is no way for people to resolve the sins rooted in humans. This is because God does not want to live long in sin (Genesis 3:24). As He said, "I remember all your evil (2)", all of this is entered and is before God. David, who knew this, asked God to examine his heart and thoughts in Psalm 139, and in Psalm 51, he confessed that after committing a sin, his eyes were opened and he sinned before God, and that the root of his sin was from his mother's womb. I can only see my light under the light of God. What was

the sin of Israel? (1) A false heart. It is the loss of a true heart. This was likened to a furnace. (6-7) A false heart originally came from departing from the truth, and the devil is the father of lies. When the Holy Spirit comes, lies are revealed and changed into a true heart. The reason Paul warned against false teachings while listing the names of two people who did not have faith in the resurrection is because lies are a deadly sin. We must draw the line that all thoughts and theories that deviate from the teachings of the Bible are false. That is why Paul told Timothy to correctly divide the word of truth. (2) A heart of pride. (10) When people depart from the truth, they naturally become proud. Only by being faithful to the Bible, which is the right teaching, can one be humble. (3) It is a heart of unbelief. They believe, but their target is different. They have undermined God's authority by relying on Assyria and Egypt. (10-12) It is said that they are like foolish doves that fly away without knowing that they will be caught in a net. Second, God's simple treatment. Human treatment is complicated and has many side effects, but God is very simple. All you have to do is return with a sincere heart. How can you go with a sincere heart? It is to have a heart that worships in spirit and truth, as the word given to the woman of Sychar. 1) It must be a spiritual heart. It refers to a heart that follows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the Holy Spirit. 2) A heart of truth It refers to worship in truth. Then you can meet the Lord. This heart refers to living with a pure heart, a grateful heart, a joyful heart, and a prayerful heart. It is a heart that follows the flow of the Bible with a united heart of the Holy Spirit. The revival of the Ephesus Church is a movement to return to the Lord with a sincere heart. When we seek the Lord with all our heart, the Lord works wonderfully within us. The disease of the modern church is that it has lost its sincerity, so the only way is to run to the Lord. Our

families, workplaces, and church life must quickly recover this heart and go to the place of true healing. I pray that you seek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증상 관찰을 통해 병이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심판할 때 그들의 병이 드러났습니다. 여호와와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한마디로 마음의 문제였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14)는 것입니다. 여기 서 모든 병이 파생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병든 마음의 실상, 개인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하여 질병정보를 알리는 인간계놈을 만들어도 인간 내부에 뿌리박힌 죄를 해결 하는 길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의 장수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창3:24)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한다(2)"고 하신대로 이 모든 것이 입력되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 읽은 시편 139편에 자기 속에 있는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기를 구했고 시편 51편에도 죄를 범한 후 눈이 떠어 하나님 목전에서 죄를 범하였고 자기 죄의 뿌리가 모친의 태중에서 부터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광명아래서만 나의 광명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것이었나요? (1) 거짓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것을 화덕으로 비유했습니다.(6-7) 거짓된 마음은 본래 진리를 떠남에서 나온 것이며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거짓이 드러나 진실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두 사람의 이름을 열거하면서까지 탄식하며 거짓 교훈을 경계한 것은 거짓은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이탈한 모든 생각, 이론은 모두 거짓이라는 선을 그려야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2) 교만의 마음입니다.(10) 진리를

떠나면 사람은 자연히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훈인 성 경에  
 착해야만 겸손할 수 있습니다. (3) 불신앙의 마음입니다. 믿 기는 믿는데  
 대상이 다릅니다. 앓수르와 애굽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의 권위를  
 실추시킨 것입니다.(10-12) 그물에 걸릴 줄도 모르고 날 아가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고 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단순한 치료법, 사람의 치료는  
 복잡하고 부작용 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성심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어떻게 성심으로 갈 수 있는가요?  
 수가성 여인에게 주신 말씀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1) 신령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 도를  
 따르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2) 진리의 마음 진리 안에서 예배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은 동 기가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 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연합된 마음으로 성경 의 흐름을 따라가는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부흥은 성심으로 주께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주를 전심으로 찾을 때 주님은 우리 속 에서 놀랍게 일하십니다. 현대  
 교회의 병은 성심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길 뿐입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생 활도 이 마음을 빨리 회복함으로 참된 치료의  
 자리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성심으로 주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람이 태풍이나 폭풍으로 변하면 그 가공할 파괴력 때 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본문 7절에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 것이라 (They sow the wind and reap the whirlwind.)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 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사람이 삼키리 라."는 예언대로 회개치 않는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 하나님 이 갚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할까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야합니다. 육체란 육 곧, 육 적 부패성을 가리킵니다. 거지같은 자기 부패한 욕망을 채우 는데 힘을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큰 본적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는 사도의 말 대로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은 우상숭배자로 사는 것 입니다. 역사상 우상숭배자는 다 망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은 제 1계명에 걸려 우상숭배자로 판결을 받아 지옥에 떨어 질게서도 정합니다. 그래서 자지고 취로 부하게 오<올리하라 본 사도 요한이 (요일5:21)"고 했습니다. 둘째, 성령을 위해 심어야합니다. 사사기에 나온 기드온 이 바알 제단을 훼파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것처럼 그 리스도인은 자기 우상파괴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헌신 함으로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고 시시 때때로 성 령의 능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1-2에 너희 몸 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입니다. 갈6:8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 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 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했습니다. 셋째.



수확을 기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도 파종의 법칙. 수확의 법칙은 언제나 작용됩니다. 바람을 심어 폭풍을 거두 듯이 진리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말씀 을 잘 받아 지키어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두나요? 육 체는 썩은 것, 성령은 영생이라 했습니다.(갈6:8) 특히 가정 의 권위에 대한 효도를 성령으로 행할 때 영생의 열매를 거 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생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뜻입니 다. 영적 불황에 진리의 씨를 바로 심어 땅에서 잘되고 장수 하는 약속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Reap What You Sow (Hosea 8:1-14) 2009. 5. 10

When the wind turns into a typhoon or a storm, it becomes an object of fear because of its incredible power. In verse 7 of the text, it says, "They sow the wind and reap the whirlwind. (They sow the wind and reap the whirlwind.) The seed will not bear stalks, and the heads will not bear fruit; if they do bear fruit, strangers will eat them up." This clearly shows us how we should sow, as God repays Ephraim for his unrepentant sin. First, we must not sow for the flesh. The flesh refers to fleshly corruption. Do not waste your energy on satisfying your own corrupt desires, which are like beggars. Because these are the most fundamental idols. As the apostle says, greed is idolatry. Living for fleshly desires is living as an idolater. All idolaters throughout history have perished. The end of man is that he will be judged as an idolater by breaking the first commandment and will be sent to hell. So, the apostle John said (1 John 5:21), "Come up and be rich in yourselves and in yourselves". Second,

we must sow for the Holy Spirit. Just as Gideon in the Book of Judges destroyed the altar of Baal and responded to God's call, Christians must start by destroying their idols and devote themselves to God. That is why the Holy Spirit came and supplies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from time to time. Romans 12:1-2 says to offer your bodies as a living sacrifice pleasing to God, which means to become a burnt offering to God. This is another way to sow for the Holy Spirit. Galatians 6:8 says, "For the one who sows to please his flesh will from the flesh reap corruption, but the one who sows to please the Spirit will from the Spirit reap eternal life." Third, we must expect a harvest. The law of sowing and the law of harvest always apply in our religious life. Just as we sow to the wind and reap to the storm, if we sow the seeds of truth, we will reap a hundredfold. It is to receive the Word well and keep it and persevere. What do we reap? The flesh is corruption, but the Spirit is eternal life. (Gal 6:8) In particular, when we practice filial piety toward the authority of the family through the Holy Spirit, we reap the fruit of eternal life. This means that we enjoy the abundance of eternal life. I hope that all the saints will experience the promise of prospering and living long on earth by planting the seeds of truth in the midst of spiritual depression.

## 순이라 이름하는 내 종 (슥3:1-10) 2009. 5. 8.

본 이상은 새 역사의 거침돌인 죄를 해결하는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와 종, 여호와와 사자인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 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 죄악을 영원히 제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은 욥기 1-2장의 장면과 같습니다.(1) 천상법정의 여호와와 사자 앞에 여호 수아가 우편에서 있는 사탄의 고소를 당합니다. 여호와는 사탄에게 두 번이나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정한 옷과 관을 씌워주시며(4-5)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리고 내 딸을 지킬 것이라고 했습니다.(6-7) 우리는 여기서 사죄에 관한 두 가지 교훈을 배웁니다. 1 죄는 반드시 실패와 형벌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극적 죄보다도 적극적 죄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백성의 죄악도 제이지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영적 죄악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2) 여호와와 천사(여호와)만이 죄를 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와 판결 때문에 사탄의 고소는 예지역의 세거하여 고시는 비쳐 하중다먼게 일서히다라(내가 여호와와 천사와 여호와는 바로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그 주님의

단번에 돌아가신 죽음만이 이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히10:17) 우리는  
 능력의 상실, 기쁨의 상실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해선.. 안 됩니다.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범하는 죄를 심각하게 생각 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합니다. 둘째, 그는 우리의 순(Branch)으로 오셨습니다. 8-  
 10절에서 우 봅시다. 그 리는 이사와 함께 물려주시트, 나병이,  
 새르우나연사를 내가 다 물 썩을 나게 하리라" (사11;1,23:5)는 것입니다.  
 썩으로 오실 그 부 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요? 1)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는 마지 막 아담, 둘째 아담의 역사로 모든 죄를 제하시고 새 역사를  
 시작 하셨습니다. 불에 그슬린 나무와 대조를 이루는 새싹운동, 겨자씨  
 운동, 누룩운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십니다.(고후5:17)  
 그에게 붙어있는 가지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  
 다.(요15:5) 2) 성령의 역사로 죄 사함의 효과를 영원히 나타내십 니다.  
 9절에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돌 위에 일곱  
 눈이 있고 새길 것이 있다는 말은 온 땅을 감찰하시 는 보냄 받은 일곱 영,  
 성령을 5보병 있게 이 선명을 가리킨 다 글 설아브이 조글리 슈동원  
 다"는 말씀대로 일곱 귀신의 역사는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일곱 영 되신  
 성령의 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령의 역 사로  
 이용과, 0절에 대우리나다 토우와, 우화과 제구, 아래오 서로 초대하는  
 날이 온다" 는 말을 봅시다. 예표의 사람들은 제사 장들인데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 안에서의  
 영적 교제입니다. 여호와와 종, 여호와와 천사, 여호와로 표현된 새 순,  
 주님은 2000여년 전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은 성령 안에서 일하십니다. 새

역사를 기대하며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 풍성한 교제를  
기대하며 영혼을 쏟는 기도로 이 복된 자리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My Servant Called Sun (Zec 3:1-10) 2009. 5. 8.

The above shows God as the Redeemer who resolves sin, the stumbling block of the new history. Let us think about who our Lord, the servant of Jehovah and the angel of Jehovah, is and what blessings are given to us through Him. First, He is the One who has removed our sins forever. The text is similar to the scene in Job 1-2. (1) Joshua is accused by Satan, who stands at the right hand of Jehovah's angel in the heavenly court. Jehovah declares to Satan twice, "I rebuke you." Then, He takes off Joshua's dirty clothes and puts clean clothes and a turban on him (4-5). He says that if he keeps His statutes, he will rule in My house and guard My courts (6-7). Here we learn two lessons about forgiveness. 1. Sin inevitably brings failure and punishment. Israel failed because of active sin rather than dramatic sin. The sins of the people were the cause of all the problems, but the spiritual sins of the leaders who failed to stand upright before God were the cause. 2) The fact that only the Angel of the Lord (Jehovah) can take away sin. Because of the judgment of Jehovah, Satan's accusation is revealed to the world and the earth is filled with darkness (I am the angel of Jehovah and Jehovah refers to our Lord. Only the death of the Lord that He died once can forgive this sin (Hebrews 10:17). We should not try to find the loss of ability and joy elsewhere.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the sins we commit by not doing positive things and become people who turn away from them. Second, He came as our Branch. We see in verses 8-10. He said, "I will make everything sprout and bring forth

leaves" (Isaiah 11:1, 23:5). What will He do when He comes as a sprout? 1) He begins a new history. He removed all sins through the history of the last Adam and the second Adam and began a new history. The sprout movement, the mustard seed, contrasting with the tree burned by fire. He is the One who will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through exercise, the leaven exercise (2 Corinthians 5:17). Only the branches that are attached to him begin to bear abundant fruit (John 15:5). 2) He shows the effect of forgiveness of sins forever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The stone set up in front of Joshua in verse 9 refers to Christ. The statement that there are seven eyes and something to be engraved on the stone refers to this clear vision of the seven spirits, the Holy Spirit, who are sent out to watch over the whole earth and have five infantry. As the saying goes, "The work of the seven ghosts is nothing more than a counterfeit, b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he seven spirits, is absolute." The cross of Christ is used as the history of the Holy Spirit, and in verse 0, we see the words, "The day is coming when we will invite one another." The people of the type are priests, referring to the Christians of the New Testament. What will happen on that day is spiritual fellowship in the Holy Spirit. The servant of Jehovah, the angel of Jehovah, the new shoot expressed as Jehovah, the Lord came to this earth 2,000 years ago and is now working in the Holy Spirit. I hope that you will arrive at this blessed place with a prayer of pouring out your soul, expecting a new history, receiving the account of your sins, and expecting abundant fellowship in Christ.

## 복음의 파수꾼(호9:1-17) 2009. 5. 17.

호세아 9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죄를 사랑하여 만신창이가 된 에브라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상숭배의 덧과 행음의 덧에 걸려 벗어나질 못하여 거의 질식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흠여 버리시겠다고 하신 예언대로 그들은 주전 622년 맛을 잃은 소금이 밖에 버려지듯 앗수르 포로로 잡혀가 암흑 속에 살았습니다. 복의 근원, 세상 등불,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잃은 자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자각하고 실행하는 것이 이 굴레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첫째, 우리 시대는 복음의 파수꾼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정 혼들 수 있는 것발을 찾고 있습니다.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 때 모든 의미가 살아납니다. 모세는 120세, 엘리야는 죽지 않았고, 엘리사는 병들어 죽었지만 여전히 산 것처럼 일했습니다. 세상이 다른 것을 위해 사명의식을 가져 보지만 허무주의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교회만이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 사명을 망각할 그때부터 자신과 가정과 사회는 불행이 시작됩니다. 둘째, 복음의 파수꾼은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타락은 선지자의 타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자가 잠을 자면 우리 시대 우리 가정이 망하지만 반대로 사명을 자각하고 깨어있으면 모두가 살아납니다. 온 세상, 만인, 만물이 살아납니다. 이 사회의 파수도 그리스도인이 정약해야하는 이유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이 신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은 평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플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실패할 때도 적용하면

정말 다이내믹한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착함, 진실함, 의로움을 모든 방면에 나타내며 그 아름다움을 보여야합니다.

부귀공명창수를 뛰어 넘는 영원한 소망을 알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의 감동을 받는 파수꾼이 되어야합니다. 에브라임의 선 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커녕 세상 욕심에 감동을 받았기에 엄청난 비참을 가져온 것을 거울삼아 복음 파수꾼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합니다. 모르드개 같이 올 곧은 신앙은 성령이 아니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명을 감당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입히울때까지 기다리며 회개 하며 사모하다가 마침내 성령의 권능을 체험한 것입니다. 복음의 파수꾼 사명을 위해 살면 모두가 다 삽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한 삶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그물을 깊은 대로 가서 힘껏 던질 때 이 망할 세상을 살리며 복된 자리로 나가게 할 것입니다.

Gospel Watchman (Hosea (9:1-17) 2009. 5. 17.

Hosea 9 shows the reality of Ephraim, who received much love from God, but loved sin and was completely wounded. In a word, they were caught in the trap of idolatry and adultery and could not escape, almost suffocating. God said that He would scatter them. As prophesied, they were taken captive to Assyria in 622 BC, like salt that has lost its flavor and is thrown out, and lived in darkness. This shows that those who forget the source of blessings, the light of the world, and the mission to conquer the land become miserable.



Recognizing and practicing the mission of the watchman of the gospel is the way to escape this shackle. First, our age is looking for the watchman of the gospel. People are looking for a flag that they can wave. When we live as watchmen of the gospel, all meaning comes alive. Moses was 120 years old, Elijah did not die, and Elisha died of illness, but he still worked as if he was alive. The world tries to have a sense of mission for something else, but it cannot escape nihilism. Only the church can free us from this shackle. However, when the church forgets this mission, misfortune begins for oneself, one's family, and society. Second, the watchman of the gospel can save everyone. The fall of Ephraim began with the fall of the prophet. When believers sleep, our age Our family may be ruined, but if we are aware of our mission and stay awake, everyone will come alive. The whole world, all people, and all things will come alive. The reason why the watchmen of this society must be Christians is because the power to fill life lies in believers. The great mountain before Zerubbabel is supposed to become a flat land. The gospel of Christ truly shows dynamic power when applied when we are sick, healthy, successful, and failed. We must show the beauty of Christ's image of goodness, truthfulness, and righteousness in all aspects. This is because we know the eternal hope that surpasses wealth, honor, and fame. Third, we must become watchmen who are moved by the Holy Spirit. We, as watchmen of the gospel, must be moved by the Holy Spirit, taking as a mirror the fact that the prophet of Ephraim was moved by worldly desires rather than being moved by the Holy Spirit, and brought about great misery. We cannot have the upright faith that comes like Mordecai without the Holy Spirit. We cannot fulfill our mission without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The power of the disciples did not come from themselves, but from the Holy Spirit.

So, I waited until I was clothed with power, repented, and longed, and finally experienc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f we live for the mission of the watchman of the gospel, everyone will live. Even if we fail in life for the mission of the gospel, it is not a failure. When you cast the net of the gospel that you have deep down, it will save this damned world and lead us to a blessed place.

## 묵은 땅을 기경하라 (호10:1-15) 2009. 5.24

문 돌쩌귀가 축을 따라 왔다 갔다 하듯이 이 세상은 부유하면 부유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남녀 노유 할 것 없이 두 종류의 죽 즉, 악의 축 혹은, 선의 축을 따라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홀 많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악에 설 1어날 생시 위하의가 지방법을 위하공를서주소 안애달 부 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묵은 땅 을 기경하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마음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첫째, 무엇이 최악의 축입니까? 13절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악을 밭 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 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에브라임(이스라엘, 사마리아)의 활동을 추수로 비유하시기를 "악을 심고 죄를 거두고 거짓을 먹는 다"는 것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죄의 삶은 사망" 이라는 법칙(진리)은 언제 어디서나 살아 있는 법칙입니다. 오늘도 최악의 축은 부지런히 돌아갑니다. 세상과 더불어 믿는 자의 생활도 악의 축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 면 에브라임의 죄가 기브아 시대와 같고(9), 지도력을 상실하여 하 나님의 영광이 떠나 수치를 당하는 이가봇 시대 같아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시대(5)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 하기 보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13) 둘째, 그러면 선의 축이란 무엇입니까? 악의 축이 맹렬하게 돌아 갈지라도 하나님 중심한 선의 축은 여전히 그보다 더 강력하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해도 지구가 하루 대강 24시간 에 축을 한번

도는 것처럼 선의 축은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며 (12)" 진실의  
 열매(12)" 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 인, 신 곧 율법의 핵심이 모두  
 나타납니다.(마23:23) 이것은 복의 핵심, 능 력의 핵심, 은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의란 기준. 표 준입니다. 의가 없으면  
 중심을 잃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 님의 의입니다. 어떻게 의의  
 씨를 심나요? 1) 내게 의가 없음을 인 정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선해야 합니다. 2) 의의 씨앗인 말씀 따 라 사는 것이 심는 것입니다.  
 그럴때 인애(unfailing love)를 거둡니 다. 3) 진실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이 셋은 축복의 삼총사와 같습니다. 의, 인, 신의 맛을 누려야 합니다.  
 셋째, 악의 축에서 선의 축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3 가지  
 액손을 취하셨습니다. 1) 강림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 로 가장  
 가까이 임하셨습니다. 2)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 묵은 땅을 기경하라 명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것입 니다. 하나님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을 심 으시기 바랍니다.  
 풍요의 소용돌이에 사로잡혀 두 마음을 품는 것 을 즐기는 시대에 악의  
 축을 벗어나 선의 축을 중심하는 결단을 가 지고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Plow the fallow ground (Hosea 10:1-15) 2009. 5.24

Just as the hinges of a door go back and forth on their axis, this world is  
 diligently turning along the two kinds of porridge, the axis of evil or the axis  
 of good, whether rich or poor, regardless of age or gender. The merciful God  
 loves His people to the end, so He said, "Break up your fallow ground..." In a

word, breaking up the fallow ground means repentance. Just like plowing a field, if you repent of the sins of your heart and seek God, you will find a way to live. First, what is the axis of sin? How did He express Israel's sins in verse 13? "They plowed wickedness, reaped iniquity, and ate the fruit of lies." God likened the activities of Ephraim (Israel, Samaria) to a harvest, saying, "They sowed iniquity, reaped iniquity, and ate lies." The law (truth) that "in the day you eat of it you shall surely die" and "a life of sin is death" is a law that lives anytime, anywhere. Even today, the axis of sin is diligently turning. The life of believers, along with the world, also turns around the axis of evil. In the text, When you look at it, it says that the sin of Ephraim was like the days of Gibeah (9) and the days of Ichabod when the glory of God turned away and was put to shame because of the loss of leadership, and that it was a time when the priests were sad (5). The reason was that they relied on the abundance of warriors rather than trusting in God. (13) Second, then, what is the axis of good? Even if the axis of evil turns fiercely, the axis of good centered on God still turns more powerfully. Just as the earth rotates its axis once in about 24 hours a day even when the world is in turmoil, the axis of good is to "sow righteousness and reap kindness (12)" and to "eat the fruit of truth (12)". Here, righteousness, humanity, and faith, the core of the law, are all revealed. (Matthew 23:23) This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blessing, power, and grace. Righteousness is a standard. If there is no righteousness, we lose our center. It is not the righteousness of man, but the righteousness of God. How do we plant the seed of righteousness? 1) It is necessary to first admit that I have no righteousness and believe in Jesus. 2) Sowing is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which is the seed of righteousness. When we do that, we will reap unfailing love. 3) It is said that we will enjoy the truth. These

three are like the three musketeers of blessings. We must enjoy the taste of righteousness, humanity, and faith. Third, God took three actions to turn us from the axis of evil to the axis of good. 1) He descended. Christ came closest as the Holy Spirit. 2) He promised to pour down righteousness like rain. 3) He commanded us to till the fallow ground. This is repentance. I hope that you will till your heart toward the direction that God points and sow the word. In an age when we enjoy being caught up in the whirlpool of abundance and having two minds, I hope that you will come to the Lord with the determination to break away from the axis of evil and center on the axis of good.

본문은 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들. 우리에게 게 다시 보여줍니다. 마치 멍에 떼 짐승의 멍에를 끌려주듯이 악한 저주받은 자리에서 멍에를 제하여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째, 짝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시작하셨습니다.(1)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팔로 안으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응답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의 일본으로 부름 받은 우리들이 먼저 할 일이 이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의 주님 요구 조항도 모든 것 중 먼저 사랑이었습니다. 가족보다 먼저, 장사보다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에 응답할 때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짝 사랑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붙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8-9) 그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속만 썩이는 것입니다. 뒤통수를 치는 격입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가요? 배은망덕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불붙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8-9)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회복이 절실합니다.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불경기의 영향이 점점 조여 오는 이 때, 우리는 주님의 불붙는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롬 5:5) 에베소 교회는 그 사랑을 잃었기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먹기 위하여 기도의 세계, 성경 읽는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 첫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돌이키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10-11) 호세아 서 각 장마다 마지막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은 번덕이 죽끓듯하여도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니 인내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기어코 그렇게 하여 안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사랑입니다. 강압적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능력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으나 진정한 돌이키는 자신의 죽음의 희생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자유입니다. 큰 용서를 받은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한없는 용서가 신자가 가야할 길입니다. 기억력이 없어지는 것이 은혜인 이유가 용서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짝사랑하는 주님에게 짝을 맞춰드리고 불붙는 사랑에 불붙는 사랑으로 응답 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사랑,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여 그 놀라운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Love of Forgiveness (Hosea 11:1-12) 2009.5. 51 The text shows us again how much God loves Ephraim. Just as He takes away the yoke of an animal that is



yoked, He takes away the yoke from the wicked and cursed place and gives us true freedom. This great love is God's love for us. How was God's love revealed in the text? First, it was revealed as unrequited love. God's relationship with Israel began with His one-sided love. (1) When I was a child, I loved my son and called him out of Egypt, and God loved him first. He took him in His arms, took off the yoke, gave him food, and healed him. But still, not a single person responded. This love is what we, who are called to Japan of the gospel, must do first. The Lord's demand in John 21 was also love above all else. He entrusted the mission because He loved the Lord before His family, before His business, before His parents. First, true comfort occurs when we respond to the Lord's love. Please do not forget God's unconditional love and respond to it. Second, it was revealed as a burning love (8-9). Despite that amazing love, Ephraim only hurt God. It was like hitting him in the back of the head. How many times does that happen in this world? Even in a place of ungratefulness, God's mercy was hot like a burning fire (8-9). Today, we desperately need to restore the love that loves God passionately. God promised that if we sincerely confess and repent, He will do so. As the effects of the recession are increasingly pressing on us, we must hold on to the Lord's burning love. In order to restore that love, we must restore prayer. The Holy Spirit of Pentecost must come (Rom. 5:5). The church in Ephesus was rebuked because it lost that love. Believers must go out into the world of prayer and reading the Bible to eat the burning love of God. Please restore this first love. Third, it was revealed as a love that turns us back. (10-11) In each chapter of Hosea, the end is revealed as God's love that He will do it Himself. Even though Israel was capricious and boiling, God showed His warm love. How much patience would be needed? He will settle them down by all means.

This is the love of forgiveness. It is not forcibly turning them back, but turning them back voluntarily. Going to this place of love is power. You can turn them back with a program, but true turning is turning them back with the sacrifice of your own death. Because this love has been poured into us by the Holy Spirit, we return joyfully on our own. This is the freedom of the forgiven. We who have received great forgiveness must also forgive our brothers for their sins. Unlimited forgiveness is the path that believers must take. The reason why losing memory is a grace is because it allows us to learn forgiveness naturally. I hope you acknowledge God's love for you. Match the Lord you love with your one-sided love and respond with burning love. And I pray that you will accept the love that turns you around, the love that forgives, and enjoy that wonderful freedom.

## 영적 변화(호 12:1-14) 2009. 6.7.

본문은 언약을 파기한 에브라임을 변화로 이끌기 위하여 야곱의 탐욕을 회상시킵니다. 진정한 영적변화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며, 어떤 모습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영적 변화란 무엇인가요?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교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본문은 "야곱의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라고 말합니다.(1-4) 호세아를 통해 보여진 에브라임의 죄는 그들 조상, 야곱의 탐욕, 굴레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탐욕은 네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1) 모태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행위를 탐욕이라 말합니다. 자의식 없는 아이가 형의 발을 잡는 것은 자기가 형이 되려는 탐욕의 본성을 보인 것입니다. 이 탐욕은 그의 성장과정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팔죽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뺏으려는 야곱의 욕심은 정말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탐욕(간사)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합니다. 2) 밋단 아람에서 고생하던 그는 라반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이 발동했습니다. 3) 압복강 나 루터에서도 그 탐욕은 나타났습니다. 본 사건을 가리켜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는 뜻으로 해석하나 호세아서에서는 그의 기도가 탐욕에서 나온 것으로 악하다고 평가합니다. 4) 그만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도 그의 탐욕은 세겜 땅에 와서 또 드러났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디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탐욕의 모습이 바로 에브라임의 모습이란 것이다. 여전개 호렷 호의 건조이! 비까지는 초원자자의 니다. 만을 들어야합니다. 10-13절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워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위시한 사사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1)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탐욕의 노예가 되어 변화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2) 여러 선지자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그들은 탐욕에서의 해방이 불가능하여 영적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인 모든 것은 여전히 탐욕을 벗기기에 부족하고 불완전했습니다. 종말시대에 보내실 그 선지자에게 모든 것을 국한 시키시면서 그분의 말만을 들을 때 참 자유와 해방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3) 예언된 그 선지자 (신 18:18)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 변화가 가능하며 하나님과의 통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면 변화 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요?(6) 앓수르, 애굽을 바라던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 것은 야곱이 뻔엘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대로 영 겹겹에 한 서원에서 나타나셨습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는 결심과 2) 성전을 짓고 3)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겠다는 자리입니다. 자기 소유의 1/10을 주께 드리는 것은 그의 주인되심을 인정•하는 뜻입니다. 그의 온전한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이 많은 지금 이 때가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야곱의 탐욕을 버리고 그 선지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명상을 가져오는 탐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Spiritual Transformation (Hosea 12:1-14) 2009. 6.7.

The text recalls Jacob's greed in order to lead Ephraim, who broke the covenant, to change. What is true spiritual transformation, how does it happen, and what does it look like? First, what is spiritual transformation? It is a state

in which the relationship with God, which was severed due to sin, is restored and fellowship is established. The text says, "Escape from Jacob's greed" (1-4). Ephraim's sin shown through Hosea is that they are caught in the greed and shackles of their ancestor, Jacob. Jacob's greed was revealed in four facts. 1) The act of holding onto his brother's heel in the womb is called greed. A child without self-awareness grabbing his brother's foot shows his greedy nature to become the older brother. This greed was prominent in his growth process. Jacob's greed to take away the birthright with a bowl of red bean porridge was truly evil. He suffered greatly because of his greed (deceit). 2) While suffering in Paddan Aram, he became greedy to take over Laban's property. 3) His greed was also revealed at the ford of the Jabbok River. This incident is interpreted to mean how hard he prayed, but in Hosea, his prayer is evaluated as evil because it came from greed. 4) Even though it seemed like he would change if he stopped, his greed was revealed again when he came to the land of Shechem. He did not keep his promise and tried to settle for reality. At that time, the Dinah incident occurred. Jacob's greed is exactly the same as Ephraim's. The dryness of the lake of fire! It is the first step to the rain. You have to listen to it. In verses 10-13, God raised up prophets to lead Israel. It refers to the judges, including Moses, and all the prophets. 1) When they did not listen to Moses, they became slaves to greed and could not experience change. 2) There was guidance from many prophets. Those who did not listen to God's voice could not be freed from greed and could not expect spiritual change. Everything that was shown before was still insufficient and imperfect to remove greed. God limited everything to the prophet who would be sent in the end times and said that true freedom and liberation would be obtained when only His words were listened to. 3) The prophet prophesied (Deut.

18:18) is Jesus Christ. Only through Him can we experience spiritual change. It is possible and communication with God is possible. Third, what is the changed state? (6) It is changing from looking to Assyria and Egypt to looking to God. This is what Jacob experienced at Bethel. It was also shown in the vow that God showed him. 1) I will serve my God, 2) build a temple, and 3) give tithes. Giving 1/10 of one's possessions to the Lord means acknowledging His mastery. It means acknowledging His complete sovereignty. This time, when we are lacking much, is the opportunity to receive grace. What we must do is abandon Jacob's greed and listen to and obey the words of Christ, the prophet. Then we can escape the shackles of greed that bring fatal wounds and have close fellowship with God.

스울에서 에덴으로 (호 13:1-16) 2009. 6. 14.

본문에서, 우리는, 북이스라엘 말기, 악한 호세아왕의 아래 있는  
에브라임을 스울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  
내가 그들을 스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 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울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네 눈  
앞에서 숨으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올이란\_무덤(grave) 곧,  
지옥, 음부란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한 경제, 직업,, 건강,, 정신  
문제가, 모두,, 올에 던져진 에브라임의 장 태와 같습니다. 여기서 건질  
자는 애굽이나 앗수르가 아니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 뿐이시며  
하나님만이 현실의 스울에서 우리를 일으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가 된 것은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을 믿고 과거 에도 건지셨고, 현재도 건지시고,  
미래도 건지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합니까? 먼저 현실의 스울을 살펴야합니다. 스홀인  
지옥 상태는 혼란과 공허가 특징입니다. 채워도 족할 줄 모르는 것을  
음부 같다고 잠언 에도 말합니다.(잠 30:15-16)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 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울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다시 말  
하면 만족이 없는 상태가 현실의 스울입니다: 성경 읽는데도 만족이  
없고,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감사가 없 고 욕구불만뿐이라면 스울에  
떨어진 증거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 고 나서 너무 비통하여 음부에  
내려가면 좋겠다고 한 그런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에브라임은  
스울에 왜 떨어졌나요? 두 가 지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교만(1)입니다. 홍해를 건너 가나 안에 들어가는 그들이 기적의 떡과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르게 되자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부요란 신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가장 복된 상태가 겸손한 마음에 생겨나는 평강입니다. 갈급하여 사모할 때가 최고의 복입니다. 교만한면 스스로 스올에 떨어지고, 교만하면 • 그리고 다른 원인은 배은망 하나날이 스에 가지시기, 매일내 금이 변종입니다. 요나가 사명을 멀리하고 도망가다가 스스로 좌절의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큰 고기 뱃속에 던지신 최악의 스올을 당했습 스올에 던져진 에브라임이 1 아침구름, 2) 이슬, 3) 광풍 의 쪽정이 4) 굴뚝의 연기처럼 모두 일시적 생명을 부지했으며 하 나님께서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 사자같이 던지셨기 때문에 아주 처절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둘째, 스몰에서 건지시는\_하나님만을 믿고 달려 나와야 합니다. 상단에 이탈진심, 아나날 세 썰이 열기시고, 2지시, 사람이 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올에 거하지 않고 에텐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찢으셨으 나 꿰매어 주시고, 치셨으나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 사람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이란 사실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만족이\_나의 만족이란 것입니다. 겸손 위에 은혜가 임함을 배우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만이 만족이란 것입니다. 스몰을 에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 면 금방 만납니다. 그의 얼굴은 우리를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6:) 반드시 스올을 에텐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From Sheol to Eden (Hosea 13:1-16) June 14, 2009 In the text, we can see God saving Ephraim from Sheol during the last days of Northern Israel under the wicked King Hosea. Verse 14 says, "I will redeem them from the power of Sheol; I will redeem them from death. Where is your plague, O death? Where is your destruction, O Sheol? Your repentance will be hidden from your eyes." In Hebrew, this Ol means grave, hell, Hades. The economic, occupational, health, and mental problems that we face today are all like the tomb of Ephraim thrown into Ol. The one who will save us here is not Egypt or Assyria, but only the Lord Almighty, and only God is the God of salvation who raises us up and saves us from the real Sheol. We believe that we have come to a situation where we have been sentenced to death like Paul, and that we must rely on God alone, and that we must come close to God who has saved us in the past, in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What should we do to do this? First, we must examine the reality of hell. The state of hell, which is hell, is characterized by confusion and emptiness. The book of Proverbs says that it is like hell, which is full but never satisfied (Prov. 30:15-16). "I am satisfied because I do not know that I am satisfied. "There are three things that do not do, four: Sheol, the womb that cannot bear children, the earth that cannot be filled with water, and the fire that does not say, 'It is enough.'" In other words, the state of dissatisfaction is the real Sheol: If you are not satisfied with reading the Bible, and if you are not thankful and only have dissatisfaction in your desires despite praying and serving, it is evidence that you have fallen into Sheol. Haven't you experienced the reality that Jacob was so heartbroken after losing Joseph that he wished he could go down to the grave? Why did Ephraim fall into Sheol? It was because of two sins. One is pride (1). They became arrogant after eating the miraculous bread and meat that filled their

bellies after crossing the Red Sea and entering Cana. Wealth is very dangerous to a believer. The most blessed state is peace that comes from a humble heart. It is the greatest blessing when you long for it. If you are arrogant, you will fall into Sheol, and if you are arrogant, • And the other cause is ingratitude. Every day is a variant of gold. Jonah ran away from his mission and became frustrated. He fell into Sheol. He also suffered the worst Sheol when God threw him into the belly of a large fish. Ephraim, who was thrown into Sheol, all survived temporarily like 1) morning clouds, 2) dew, 3) the chaff of a storm, 4) smoke from a chimney, and because God threw him like a lion, a leopard, a bear that lost its cubs, and a female lion, he fell into a very miserable place. Second, we must believe only in God who saves us from small and run out. At the top, the three rices of Italjinsim and Annanal are opened, and the second is Man. This is God's will. God wants us not to live in Sheol but in Eden. It is Immanuel. Please respond to the love that tears but sews, and hurts but restores. Those who come to God learn that the source of blessing is only God. God's satisfaction is my satisfaction. Learning that grace comes upon humility also means that God alone is satisfaction. God who changes small into Eden If you seek His face and seek Him, you will soon find Him, for His face is turned toward us. (Numbers 6:) I believe that He will surely change Sheol into Eden.

15회에 걸친 호세아 강해를 마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씀을 같이 나눈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말씀을 통해 받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귀하게 여기고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거친 세파에서 실패하여 고멜처럼 되었다 할 지라도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unfailing love)의 강수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경신학자 보스(Vos)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호세아 14:8절을 가지고 "놀라운 나무(Wonderful Tree)" 라는 제목의 설 교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호세아가 외친 은혜를 신약에 오 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강조합니다. "반역이 그치고 진노가 떠나 가고 풍성한 곡식과 백합화가 향기를 발하고, 백향목의 뿌리가 강 성해지고, 강랑나무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히는 날로 새롭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임하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슬과 푸른 잣나무가 되신다고 하신 것은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곧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비유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부으시는 풍성한 은혜 곧, "은혜의 장마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첫째,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하는 은혜입니다.(1-3) 고멜의 변심 처럼 이스라엘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사자의 이빨을 뽑아 놓듯이 완전히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며 우상을 나의 주라고 부르지 못하도록 근본을 고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큰 혼란으로 어찌 할 줄을 모르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단 쌓는 일입니다. 거듭난 영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앓도록. 전적으로 돌이켜 다시는 범죄 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둘째, 풍성한 열매를 맺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여기 나오는 5가지 식물, 백합, 백향목, 포도, 감람나무 그리고 잣나무는 신약의 부흥을 비유했습니다. 신자생활의 번성, 성공, 강성,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열매가 모든 방면에 약속되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강수 옆에 자라는 나무들이 모두 무성하고 시절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는 약재료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생명나무 운동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꿈꾸며 기대하며 말씀을 받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성경읽기, 기도하기, 예배참석, 십일 조 생활, 봉사 등을 습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입니다. (9) 호세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여호와와의 도로 마칩니다. 성경운동이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성경 공부를 통해 부흥을 기대해야 합니다. (행 19:) 이것은 에덴동산의 은혜였고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달라붙은 사람들에게 에덴동산의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의 장마비를 받을 준비를 하시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Rain of Grace (Hosea 14:1-9) 2009.6. 21 I give glory to God who allowed me to finish the 15-part lecture on Hosea, and I thank the saints who shared the word with me. I hope that you will treasure and hold on to even the crumbs of grace you received through the word and move forward. One thing you must remember is that even if you fail in the rough waves and become like Gomer, you must jump into the torrent of God's unfailing love. The famous biblical

theologian Vos once gave a sermon titled “Wonderful Tree”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using Hosea 14:8. He emphasized that the grace Hosea cried out was the grace of Christ who would come in the New Testament. This is because it promised that “when rebellion ceases and wrath is turned away, when abundant grain and lilies give off their fragrance, when cedars take root and the cypresses bear fruit, when the fir trees and vines bear fruit, new and abundant grace will come every day.” God Himself becoming the dew and the green fir tree is a metaphor that reminds us of the tree of life in the Garden of Eden, that is, Christ. This refers to the abundant grace that is poured out in the New Testament, the “rain of grace.” What exactly is this? First, it is the grace that makes people turn to the Lord. (1-3) How many times did Israel go back and forth like Gomer’s change of heart? God made it so that it would never happen again. It is to completely turn back like pulling out a lion's teeth. It is to return to the Lord and bring the word of God, to offer the fruit of the lips to the Lord, and to fundamentally change so that we cannot call idols my Lord. In this time of great confusion and not knowing what to do, what we must do is to build an altar. Those who have a reborn spirit must take measures so that the Holy Spirit will never commit the sin that leads to death. They must completely turn back and take measures so that they will never commit sin again. Second, it is the grace that produces abundant fruit. The five plants mentioned here, lilies, cedar trees, grapes, olive trees, and pine trees, are metaphors for the revival of the New Testament. It shows the prosperity, success, strength, and good influence of the life of believers. In a word, abundant fruit is promised in all aspects. All the trees growing next to the river in Ezekiel's vision will be lush and bear fruit in every season, and those trees will become medicinal materials. In a word, it is the Tree of Life

Movement. The church must accomplish this work through the Holy Spirit. It is. Dreaming of this abundant fruit, and in order to receive the word, I hope you make the most basic things such as reading the Bible, praying, attending worship, tithing, and serving as habits. Third. The word is the grace that works. (9) The last chapter and last verse of Hosea ends with the way of Jehovah. It is a promise that the Bible movement will occur. Like the church in Ephesus, we must expect revival through Bible study. (Acts 19:) This was the grace of the Garden of Eden and is an unchanging grace. Please prepare to receive the rain of grace and go out so that the fruit of the tree of life in the Garden of Eden may be borne for those who cling to God.

## 예수를 믿는 사람 (요1:12-13) 2009. 7. 5

예수님 공사역의 심층을 다루면서 사도는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12-13절에서 그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곧 설정, 국리습도 사열 제해은,신잡하니다 가여제한 는 자 를 주셨으니"라고 하여 영접"과 믿음을 같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예수를 개인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세력 를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천당에 들어간 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13) "영접"의 헬라어, "람바노"는 "사용하기\_위하여, 손으로, 취 하다. 소유로 취하다, 연합하다 그를 접근하여 받아들이다. 선택하다. 경험하다, 결혼하다, 점령하다"는 뜻으로 요한복음에만 40회(KJV 260회). 나오는 단어입니다. 종합하면, 그리스도를 존재 중심에 모셔 들이는 적극적 환영 행위를 가리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환영한 것과 같습니다.(계, 3:2인) 면 저 정 대일개 품으로 과해야의 니다 지정 나오 되 저있습 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이 복음(행20:20)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연합되어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하면 연결된 요소가 존재합니다. 1) 지적 연합. 마 18장의 세리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하셨다는 지식이 있어야하고 2) 감정적 연합.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슬퍼하 연하의 우려 보지도 하고 즐거움을 어이 깔며 가슴을 차 랑하는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야하며 그리고 3) 의지적 연합. 알고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잡은 의지의 운전대를 주님께 위탁하는 행위가 일어나야합니다.

믿음이란 회개 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셋째, 사건이 따라야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 되고 진정한 회개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성장함으로 사건을 일으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 믿음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과 연합 된 실제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1장에 나온 초기의 신자들 일 한 이 사건들로 제 별 나오다 나영 용된 회개한 고여습회 연합하였기에 더 연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가서 보고 같이 살았고 또 증거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Those who believe in Jesus (John 1:12-13) 2009. 7. 5

While dealing with the depth of Jesus' public ministry, the apostle says that saving faith begins with believing in Jesus. How does he prove this in verses 12-13? Soon, the setting, national customs, and customs of the world, the sea, and the seafaring people were established, and the one who had been given the power to do so was established, and "the Lord gave him his own, and he gave him the power to do so." This means that only those who personally accept Jesus as "my Lord and my God" will be saved. In other words, they are those who have receiv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re born again, have entered heaven, and have the authority of God's children. (13) The Greek word for "receive," "lambano," means "to use, to take with one's hand, to take as one's own, to unite, to approach and receive him, to choose, to experience, to marry, to occupy." It appears 40 times (260 times in the KJV) in the Gospel of John alone. In summary, it refers to an active welcoming act that invites



Christ into the center of one's being. Just as Zacchaeus welcomed and accepted Jesus' invitation with joy (Rev. 3:2), he must be a true believer. He said to repent and believe in the gospel, and that repentance toward God and faith in the Lord Jesus are the gospel (Acts 20:20). Since these two are united, there are connected elements when comparing the two. 1) Intellectual union. Like the tax collector in Matthew 18, there must be the knowledge that one is a sinner and the knowledge that only Christ can solve this problem. 2) Emotional union. There must be an emotional movement of feeling sorry for the sins one has committed, looking up to the younger generation, enjoying it, and feeling heartbroken. And 3) Willful union. Not only knowing and loving, but also entrusting the steering wheel of one's will to the Lord must occur. Faith is the connection between repentance and faith in accepting the gospel. Third, events must follow. Christians who begin by accepting Christ and are saved through true repentance are like trees. Just as a tree grows, blossoms, and bears fruit, faith is meant to grow and cause events. That is why Paul said

- It is the work of faith. Because faith is a practical work united with the living God. The early believers in Chapter 1 were united because of these events, and they wanted to unite more. They went and saw, lived together, and also testified. This is a believer who believes in Jesus.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안고 출생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일생을 살았습니다.(6-8) 이사야 예언에 나온 광야의 소리의 사명은 말라기 예언에 더 명확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과 연합시키는 일이었습니다.(4:5-6) 훗날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여인이 낳은 자중 가장 큰 자로 엘리야로 왔다고 해석하셨습니다. 그의 생애는 어떤 점에서 본을 보였습니까? 첫째, 섬김의 본입니다. 메시아의 길잡이로 왔던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며 열심히 증거할 때, 산헤드린 공의회는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 자초지종을 묻기를 1) 그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말한 그리스도이냐? 2)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이냐? 3) 신명기 18:18절의 예언된 그 선지자이냐?"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참 빛이 아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한 증인입니까? 인기에 오르내리고 기분나는 대로 흘러갔다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로 예수님께 향하도록 적극 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는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은 종의 생애를 본으로 남겼습니다. 둘째, 그는 광야에서 사는 비결을 터득했습니다.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비유한 것은 광야란 세상을 가리키며 고독이 특징입니다. 세상을 사는 법을 우리는 요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는 아브라함처럼 본향 가는 나그네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셋째, 그는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외친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선포이고 소리란 울림만이 남을 뿐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 곧,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법을 요한에게서 배워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의 소리를 찾고 있습니다. 요한은 초림의 길잡이지만 우리는 재림의 길잡이로 부름 받았음을 잊지 말고 세례요한처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로 살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Voice in the Wilderness (John 1:19-28) 2009. 7. 12.

John the Baptist, who was born with the mission to testify about Christ, the true light, lived his life as a voice crying out in the wilderness. (6-8) The mission of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n the prophecy of Isaiah is more clearly stated in the prophecy of Malachi. It was an act of uniting the heart of a father with the heart of a child, with the heart of Elijah (4:5-6). Later, Jesus interpreted him as the greatest of those born of women, who came as Elijah. In what ways did his life set an example? First, it was an example of service. When John the Baptist, who came as a guide for the Messiah, baptized people in the Jordan River and testified diligently, the Sanhedrin Council became very tense. They sent people to ask him the whole story: 1) Is he the Christ spoken of by Abraham, Moses, and David? 2) Is he the Elijah prophesied of by Malachi? 3) The question was, "Are you the prophet prophesied in Deuteronomy 18:18?" John answered no to that question. He said no because he was not the true light. How faithful a witness is he? If he had been popular and had let his mood take him, he would not have been able to give such an answer. And he actively testified of Christ so that they would turn to Jesus. He left an example of a servant who walked the path of humility and obedience. Second, he learned the secret of living in the wilderness. John likened himself to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referring to the wilderness as the

world and characterized by loneliness. We must learn how to live in the world from John. He lived his life as a wanderer on his way to his hometown like Abraham, simply and humbly. Third, he lived as a voice crying out. Crying out is a declaration with hope, and a voice is something that only leaves an echo and soon disappears. We must learn from John how to spread the gospel, that is, repentance and faith. Even now, God is looking for a voice in the wilderness. John was the guide for the first coming, but we are the guides for the second coming. We must not forget that we have been called to be guides, and we must live as witnesses of the gospel like John the Baptist. I hope that you will live as a voice in the wilderness preparing the way for the Second Coming.

## 도성인신의 은혜 (요1:1-18) 2009. 6. 28

요한복음의 1 세계는 초두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에 계신 말씀"(1) 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신 장엄한 사건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한 마디로 도성인 신이라 합니다.(14) 도(말씀)이신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 가지 비유로 설명하기를, 사상을 말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로고스라고 합니다.(골1:15) 로고스는 인격자이시면서 하나님이며 창조자이십니다.(2-3) 또 생명(Life)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분이 생명을 포함하시면서 자신이 생명이십니다.(요14:6) 그리고 이 중요합니까?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 위에 장막을 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을 가리킵니다. 2장에는 자신을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신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막인 장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계시록7:15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느김이 없어도 약속대로 내게 임하신 임마누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 보좌의 영광을 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란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진실을 갈리지니다 의정의 되안에서만 받은 오늘 전일이 요순종의 모본을 보이신 유일한 분,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 링공 성령의 영광입니다. 창1:2절에 여호와와 신이 운행하셨음은 성령의 영광을 보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일곱

영의 역사가 모두. 그 영광입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오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은혜와 진리 충만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도 요한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 하더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오는 열매를 체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은혜란 선물, 기쁨이란 뜻이며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 속에 죄사함, 영생, 구원 등이 들어있습니다. 진리란 분명하고 밝은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와 진리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The Grace of the Human Being (John 1:1-18) 2009. 6. 28

The Gospel of John 1 From the beginning, the world speaks of the Savior Jesus Christ as "the Word who was in the beginning" (1). How does John express the magnificent event of the Word becoming human? In a word, he calls him the human being. (14) God, who is the Word, became a true human being. John explains in three metaphors that Jesus is the one who revealed the invisible God, as if expressing thoughts in words, and he is called the Logos (Col 1:15). The Logos is a person, God, and the Creator. (2-3) He also says that he is Life. "In him was life." He contains life and is life himself (John 14:6). And is this important? First, because it is the work of God pitching His tent over His people. Verse 14 says, "And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What does it mean to say, "And dwelt"? It refers to God becoming a human being. In chapter 2, it says that He emptied Himself and took the form of a servant. He said that He came and dwelt among us. The tabernacle, the tent, is a symbol of God's presence. In Revelation 7:15, it says that God

will pitch His tent over His people. Even if you don't feel it, please praise Emmanuel who came to me as promised. Second, it is because it is seeing the glory of God's throne. In verse 14, it say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Glory is the glory of the Son, the only one who received today's full day and showed an example of obedience only in the righteousness, holiness, and truth, which are the characteristics of God. That ring is the glory of the Holy Spirit. In Genesis 1:2, the movement of the Spirit of Jehovah shows the glory of the Holy Spiri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the work of the seven Spirits, all of that glory. Here, the word "see" has two meanings. Please pay attention to the glory of Christ who came so that we can easily approach Him no matter how difficult it may be. Third, because we can enjoy the fullness of grace and truth. The apostle John, who saw the incarnate Christ, said, "He was full of grace and truth." This is the confession of one who experienced the fruit that came as a result. Grace means a gift, joy, and something soft. It contains forgiveness of sins, eternal life, salvation, etc. Truth is something clear and bright. The church wishes you to become saints who bear grace and truth.

## 그 세계를 보는 사람 (요 1:43-51) 2009. 7. 19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자라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아버지의 일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보냄 받은 자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말씀하셨다"는 주장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은 물론, 그 세계를 도무지 볼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그 세계를 안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메시야를 기다리는 나다나엘을 찾아가 전함으로 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본문에서 우리는 그를 영접한 자에게 펼쳐지는 세계가 어떠함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더 큰 일의 세계란 어떤 곳입니까? 50절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접할 때 눈이 뜨여져 시작된 신령한 세계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즉각 일어나는 구원 세계의 연장선인 그 세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 세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야곱이 보았던 곳, 이사야가 보았던 곳, 아브라함이 한 천사와 이야기하던 그 세계, 밧모섬에서 요한이 본 인자가 계신 그 세계 곧, 만물을 통제하는 세계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몇 마디 주고받는



동안 그 세계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둘째, 어떻게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까?  
 나dana엘의 경험을 통 해 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1) 말씀에 단순히  
 응답할 때 보여집 니다. 빌립의 단순한 증거 곧,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과  
 의심이 되어 도 와보라는 그 말에 응하자 즉각 그 세계가 열렸습니다.  
 답답하고 의문이 많아도 말씀에 무조건 응답하고 성경이라면 무조건  
 응답할 2•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2) 주님과만 상대로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했는가? 구약을 보면 그 시대의  
 거짓과 외식을 탄식하며 메시아를 보내 달라고 간구한 것이 틀림없습니  
 다.(눅3:8) 세례요한의 증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는 진실되이 메시 야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보입니다. 3) 개인적인 사랑고백을 할 때 그  
 세계가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와 의 개별적 만남이 있을 때 그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면서 인 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것 입니다. 이것은  
 창28장에 가서야 풀려집니다. 야곱의 뵤엘의 체험 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다리가 인자로 바뀌어졌습니 다. 그리스도만이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중보자이기에 그 세계는 중보 사역이 활발한  
 곳입니다.. 약속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즉각 응답하고  
 하 나님께 부르짖어 주님과 의 사랑의 고백을 순간 순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은 개인의 일마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이 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는 약속대로 인자 위에 여호와 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해지기를 축원합니다.

A person who sees that world (John 1:43-51) 2009. 7. 19

In order to teach the truth that meeting Christ means meeting God, the Gospel of John emphasizes the unity of Christ and the Father. The claims that “He who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and “I am sent by the Father and I have said only what the Father tells me to do” are all declarations that salvation, as well as the world, cannot be seen except through Jesus Christ. In the text where Philip, who believed in Jesus and knew the world, went to find Nathanael, who was waiting for the Messiah under the fig tree, and told him, Nathanael came to believe that Jesus was the Christ, we can see what kind of world is opened to those who accept Him. First. What kind of world is the world of greater things? Verse 50 says,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This refers to the spiritual world, the invisible world, the spiritual world, which begins when our eyes are opened when we encounter the omniscience and omnipotence of Christ. This is where the world unfolds as an extension of the world of salvation that immediately occurs when we accept Jesus. That world is where God’s throne is, the place Jacob saw, the place Isaiah saw, the world where Abraham spoke with an angel, the world where the Son of Man is that John saw on the Isle of Patmos, the world where all things are controlled. Nathanael confessed, “You are the Son of God, the King of Israel,” after exchanging a few words with Jesus. Second, how can we see that world? We can see that world through Nathanael’s experience. 1) It is revealed when we simply respond to the Word. When we responded to Philip’s simple testimony that he had met the Messiah and asked him to come to him because he had doubts, the world immediately opened up. Even if we are frustrated and have many questions, when we unconditionally respond to the Word and unconditionally respond to the Bible, the Lord works. 2) It is revealed when

we pray only to the Lord. What did he do under the fig tree? If we look at the Old Testament, we can see that he lamented the lies and hypocrisy of that era and prayed to send the Messiah (Zec 3:8). He already knew the testimony of John the Baptist, so it seems that he sincerely waited for the Messiah to come.

3) It is revealed when we make a personal confession of love. When he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Christ, he confessed Him as my God. At that time, the Lord said, “Do you believe because I said I saw it under the fig tree?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He said that he would see the angels of God ascending and descending on the Son of Man. This is not revealed until Genesis 28. He spoke specifically about Jacob’s experience at Bethel. The ladder was changed to the Son of Man. Since only Christ is the mediator who can see that world, that world is a place where the ministry of mediation is active. I hope that you will look upon the promised spiritual world, respond immediately to the word of the Lord, cry out to God, and confess your love for the Lord moment by moment. The Lord will surely fill every individual’s work to overflowing. I pray that your fellowship with God, where the angels of the Lord ascend and descend on the Son of Man, will become active, as promised, “You will see greater things than these.”

## 아름다운 가정의 표적 (요2:1-11) 2009. 7. 26

그리스도를 만난 개인의 감격은 가정의 감격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텐동산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하나님 계획의 중심이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첫 창조의 중심이 한 가정의 아름다움에 있는 것처럼 재창조의 중심도 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심으로 나타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표적이 복음의 샘플인 첫 표적과 첫 영광과 첫 믿음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정 파괴의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리스도 중심한 가정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 첫째, 믿음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할 때, 피스튜오란 말은 신뢰, 위탁이란 뜻입니다. 과거에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여기서 믿었다는 말인가요? 아 아닙니다. 믿음은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성장하는 믿음이 있는 개인과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3-4절에 보면 포도주가 모자란 문제를 주님께 아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를 통해 전수받은 하인들의 믿음을 통해 주님은 일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5)"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주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하는 믿음이 아름다운 가정의 표적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은 어떤 때 생기나요? 모자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일 때 생깁니다. 믿음이 좋은 가정을 이루는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순종의 가정이 아름답습니다. 산 믿음은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란 믿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하인의 순종이 대단한 이유가 변명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데 웬 물을 길래,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힘이 든다니 등등) 여러 차례 시험이 올 수 있는  
 일에도 처음가진 마음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그럴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가정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이어야  
 아름답습니다. 믿음 과 순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11절이 중요 합니다. 가정에서 영광 받으실 분은 부부나 연회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시내 산의 영광, 성막의 영광이 이제 한 가정의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 운동의 목적이며 방법입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추수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제일의 목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목표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 A Sign of a Beautiful Family (John 2:1-11) 2009. 7. 26

The emotion of an individual who met Christ was transferred to the emotion  
 of the family. In the Garden of Eden created by God, a man and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family of one woman became the center of God's plan.  
 Just as the center of the first creation was the beauty of a family, the center of  
 the re-creation is also revealed by restoring the beauty of a family. This is

because the sign of water turning into wine shows the first sign, the first glory, and the first growth of faith, which are samples of the gospel. In a world full of temptations to destroy families, how can we restore the beauty of a Christ-centered family? First, we must create a family of faith. When it says in verse 11, “This, the beginning of miracles, Jesus did in Cana of Galilee, and manifested his glory; and the disciples believed in him,” the word *pisteuo* means trust, entrust. Does it mean that they believed in Jesus here when they did not believe in him in the past? No. It shows that the growth of faith began in those who believed. Individuals and families with growing faith are beautiful. In verses 3-4, the Lord worked through Mary’s faith and the faith of the servants who were taught through Mary when they asked the Lord about the lack of wine. He heard the words, “Do whatever he tells you (5)” and did as he said. This is the sign of a beautiful family that welcomes the Lord and follows his words. When does this precious faith come? It comes when we pray when we are lacking and when we accept the authority of the Word. We must have a vision of a family with good faith. Second, a family of obedience is beautiful. Living faith produces obedience. Obedience means doing as we believe. When we do as we believe, history is revealed. It is too easy. The reason why the servant’s obedience is so great is that he did it to the end despite the excuses he could make. (Why did he draw water when there was no wine? He also told us to give it to the banquet hall, saying it was hard work, etc.) He kept his original heart even when he was tested many times. At that time, he experienced the change of water turning into wine. It is truly amazing that he participated in the history of redemption. It greatly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family. The history of creation took place. Third, a family that shows the glory of God is beautiful. Where there is faith and obedience,

God's glory is revealed. Verse 11 is important. It is not the couple or the banquet hall that receives glory in the family. It is God who must display His glory. "The manifestation of Christ's glory is the manifestation of the Father's glory. The glory of Mount Sinai and the glory of the tabernacle are now displayed as the glory of a family. This is the purpose and method of the redemptive movement. When the glory of Christ is displayed in our family, God uses us in the harvest season. Please do not lose sight of your primary goal. Whether you eat or drink, please aim to display God's glory.

## 완성된 성전의 표적(요2:13-25 ) 2009 8. 2.

복음은 참 성전을 완성시킵니다. 46년 걸린 건물 성전을 헐어버리면 주님이 친히 3일 만에 세우시겠다는 것은 건물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선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성 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 라는 비난을 들을 정도로 그 말은 충격적 인 선포였습니다. 건물 성전으로만 생각한 제자들도 훗날에서야 그 의미를 깨닫고 성경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건물 성전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완성된 성전, 영적 성전 곧 교회로 완성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회복됩니까? 첫째, 무엇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성전입니까? 구약이 건물 성전에 치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건물을 넘어 영적세계의 성전을 말한 것을 모세도 솔로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세우니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구름기둥 불기둥 곧,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습니다. 솔로몬도 헌당할 때 크신 하나님이 이 제한된 곳에 계실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은 신약에 와서 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건물에 쏟는 마음을 완성된 성전인 그리스도에게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든 헤롯 성전도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만일 건물 성전이 구원의 중심이라면 주님께서 건물 중심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성전으로 열방이 몰려 올 것이라"는 식의 선언을 하실 터인데도 도리어 이 건물을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 무너진 건물 성전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비유로 자기 몸이 성전 됨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상징주의인 건물 성전에 집중하지 말고 완성된 성전인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강림하여 임재하신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임마누엘이지요. 그 임마누엘은 그리스도 이 름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성육신이 그래서 중요 합니다. 그 안에만 진정한 성전의 은혜와 진리의 흐름이 있기 때문 입니다. 이 흐름이 세상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둘째, 참 성전이 회복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3 가지를 말합니 다. (1)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야합니다. 요한이 나중에 해석하 기름 적물은 조기 제•어 결이전 5진 이라고 영화하게 망발습 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실을 종종 확인해야 합니다. (2)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야합니다. 죽음과 연합하는 것은 자연히 그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연합으로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인 가요? (3) 믿음으로 연합해야합니다. 아름답게 하는 길을 유대인들 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습니 다. 성령이 임한 후에야 깨달았습니 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성경과 예수의 말을 믿었습니 다. 성경을 믿을 때 성전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성전의 아름다 움을 맛보고 그것을 따르는 신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The Sign of the Completed Temple (John 2:13-25) 2009. 8. 2. The gospel completes the true temple. The Lord's declaration that He would personally rebuild the temple in three days after tearing down the temple that had been built for 46 years was a declaration that the temple in the building was no longer a temple. It was such a shocking declaration that the Lord on the cross

was criticized as "the one who builds the temple in three days." The disciples who thought of the temple in the building only later realized its meaning and came to believe in the Bible and Jesus. The temple in the building was not the temple that the Lord wanted, but the completed temple, the spiritual temple, that is, the church, was completed. How is the beauty of the temple restored? First, what is the temple in God's plan? Although the Old Testament seems to focus on the temple in the building, both Moses and Solomon knew well that it spoke of the temple in the spiritual world beyond the building. When Moses finished setting up the tabernacle, glory filled the tabernacle. The pillar of cloud that led Israel was the presence of God's glory. Solomon also knew when he dedicated the temple that the great God could not be in this limited place. This fact was made clearer in the New Testament. It is to place the heart that pours into the building on Christ, the completed temple. The Lord also recognized Herod's temple, which was built for political purposes, as a temple. If the building temple were the center of salvation, the Lord would have declared, "All nations will flock to this temple" in order to spread the gospel centered on the building, but instead, he said to tear down this building. It means that the building is not the essence of the temple. Furthermore, he declared that his body is the temple by metaphorically raising this collapsed building temple again. It is to say that we should no longer focus on the symbolic building temple, but on ourselves, the completed temple. What is the true temple? It can be said to be the place where God descends and is present. That is, Immanuel. Immanuel is the name of Christ and refers to the state of God being with us. That is why the incarnation is important. Because only in it is the true temple's grace and truth flow. This flow brings about beautiful changes in the world. Second, what is the way for the true temple to be

restored? There are three things to say. (1) We must be united with the death of Christ. John later interpreted the oil as the five stages of early control and resolution. So we must often confirm the fact that we died with Christ. (2) We must be united with the resurrection of Christ. Being united with death naturally means being united with his resurrection.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a transformation into a new body. Through the resurrection and union with Christ, we also become living beings again. How wonderful is the beauty of being alive? (3) We must be united by faith. Neither the Jews nor the disciples knew the way to be beautiful. They realized it only after the Holy Spirit came. This is a mystery. Only then did they believe in the Bible and the words of Jesus. When we believe in the Bible, the beauty of the temple is restored. I hope you will taste the beauty of the temple and live as believers who follow it.

## 중생의 가르침(요3:1-15) 2009. 8. 9.

중생이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란 말로서 그리스도인 구원과 신앙생활의 시작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시작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중생 없는 사람은 구원은 물론, 정상적 삶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반드시 점검해 야할 사건입니다. 첫째, 중생의 방법, 성령의 일하심이 없으면 아무도 중생 할 수 없습니다. 흑암이 빛으로 나타나듯이 성령이 영혼에 임하여 살리신 것입니다. 우주보다 영혼은 더 섬세하고 광대 합니다. 그래서 소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는 죄인 속에 성령이 일하심으로 첫창 조의 부패성을 모두 제하시고 새 창조물로 빚으십니다. 마치 건물 성전이 헐리고 완성된 새 성전이 지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새 창조의 변화는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단독 역사로서 한 순간에 홀연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생을 말하면서 곧 이어 주님이 자신의 죽음의 필연성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만이 중생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 하면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십자가 중심 한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으며 베드로는 그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할 때 성립되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느낌보다 의지를 그에게 두는 것입니다. 둘째, 중생의 결과. 거듭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나나요? 주님은 둘을 명백하게 보이시기를 1) 하나님 나라를 보는 체험이 일어납니다. (현재) - 여기 본다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계시로 인한 앎 곧,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평강, 진실, 사랑을

맞본다는 말입니다. 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을 갖습니다.(미래) - 통치를 알 뿐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알고 들어갑니다. 바울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중생의 분별 기준.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1) 진실성입니다. 믿음은 사건이고 믿음은 진실된 헌신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2) 그리스도의 형상화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중심한 변화가 없다면 그는 중생한 사람이 아닙니다.

The Teaching of Rebirth (John 3:1-15) 2009. 8. 9. Rebirth means “being born again” or “being born again,” and it is an event that corresponds to the beginning of Christian salvation and faith life. Just as we cannot expect results without a beginning, those without rebirth cannot be saved, let alone live a normal life, so it is an event that everyone must check. First, the method of rebirth, no one can be reborn without the work of the Holy Spirit. Just as darkness appears as light, the Holy Spirit comes to the soul and makes it alive. The soul is more delicate and vast than the universe. That is why it is called a microcosm. The Holy Spirit works in sinners who are in chaos, emptiness, and darkness due to sin, and removes all the corruption of the first creation and creates a new creation. It is like the destruction of a temple building and the construction of a new, complete temple. The change of the new creation is an event that occurs suddenly in an instant as God’s sole work that no one can interfere with. This is related to the event of the cross. Because the Lord spoke of the necessity of his own death right after speaking of rebirth. Because only the death of Jesus is the basis of rebirth. When you believe in his death and resurrection, the Holy Spirit works, and when the Holy Spirit works, you believe in that fact. Therefore, Paul tried to preach the gospel centered on the

cross, and Peter was convinced of being born again through that word. Rebirth has legal effect when you clearly confess Jesus Christ. It is placing your will on Him rather than your feelings. Second, the result of rebirth. What kind of fruit appears when you are born again? The Lord clearly shows us two things: 1) You experience seeing the kingdom of God. (Present) - Seeing here means knowing. It is living knowledge, that is, knowledge through revelation. It means tasting the righteousness, peace, truth, and love of the kingdom of God. 2) You have the confidenc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Future) - You only know the reign, and you know that you will enter that world in the future. Paul's having citizenship of heaven means that he will enter that kingdom. Third, the criteria for discerning rebirth. There are two criteria. 1) Sincerity. Faith is an event, and faith is followed by true devotion. 2) The imagery of Christ. Because we are united with the Lord. If there is no change centered on Christ, he is not a reborn person.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의 본문은 유대인에게 성전, 성막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셨던 주께서 자신이 세상의 구주되심을 최초로 나타내는 일이기에 주목해 야만 합니다. 유대인 랍비에게 거듭나는 문제를 가르치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솟아나는 영생수이심을 가르치심으로 구원의 심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첫째, 자꾸 목마른 인생,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성경은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다고 하는데 본문은 또 갈증을 느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will be thirsty again)"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일시적 목마름입니까? 1) 육체가 일시적입니다. 2) 욕구도 일시적입니다." 3) 인간관계도 일시적입니다.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욕구를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향하라는 것인데 다른 관계로만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목마름의 현장에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환영하기만 하면 영원한 샘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고 그 여인의 물 걷는 현장에 찾아오신 이는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둘째, 이 갈증을 해결할 자가 누구인가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영원한 샘물이 누구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 성령이십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선물과 주님을 구분시킵니다. 그 선물을 어떤 이는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 그리스도는 영생수도 되시고 주시는 분도 되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이라고 했습니다. 주님만

이 영생물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움직이는 샘물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셋째, 누가 이 샘물을 체험합니까? 수가성  
 여인의 체험은 우리에게 영생 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1) 누구든지 먹을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보편적입니다.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2) 마시는 개인 곧 믿는 자가  
 체험합니다. 그 여인은 만나자 마자 회개와 믿음 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비스러운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The Fountain of Eternal Life (John 4:1-26) 2009. 8. 16

The text of the incident where the Samaritan woman met Christ is noteworthy because it is the first time that the Lord, who had revealed Himself to the Jews through the temple and the tabernacle, revealed Himself as the Savior of the world. The Lord, who taught the Jewish rabbi about being born again, led the woman into the profound world of salvation by teaching her that He is the springing water of eternal life. First, when we constantly ask what a thirsty life is, the Bible says that it is like fog and a flower of the field, but the text also says that it is a being that feels thirsty. In verse 13, Jesus said, "Everyone who drinks this water will thirst again." What kind of temporary thirst is this?

1) The body is temporary. 2) Desire is also temporary." 3) Human relationships are also temporary. The desire for eternity in life is to turn to God, but seeking satisfaction only in other relationships is also temporary. However, if we welcome Christ who has come to the place of thirst, we can obtain eternal spring water. The one who passed through the city of Samaria



and came to the place of the woman drawing water is none other than our Lord. Second, who is the one who will quench this thirst? In verse 14, "The water that I will give will become in them a spring of water welling up to eternal life," we can clearly see who the eternal spring is. 1) It is the Holy Spirit. Verse 10 distinguishes between God's gift and the Lord. Some may say that the gift is salvation, but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Holy Spirit who accomplishes salvation. 2) Christ is the water of eternal life and also the one who gives it.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Christ. It says that it is the water that "I" give. Only the Lord is eternal life. The Lord prepared everything and came to us. Christ is It is a moving spring. When anyone calls on its name, the Lord works. Third, who experiences this spring? The experience of the Sychar woman clearly shows us who can drink the water of eternal life. 1) It is open for anyone to drink. It is universal. It has broken down barriers. 2) It is experienced by the individual who drinks it, that is, the believer. As soon as the woman met, repentance and faith arose. I pray that this mysterious experience will occur.

## 한나의 기도 (삼상 1:1-20) 2009. 8. 23

혼란한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주부였던 한나는 불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서 문제를 해결 받고 주신 아들을 바침으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 기도를 드렸습니다.(10) 기도란 크고 작은 어떤 문제에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구의 용이지만 그리스도있이라고는 말할 수 있는 집을, 엘가나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매년 여호와께 나아가 제사했습니다.(3)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의 아내 한나는 불임의 문제로 절망하고 한이 많아 통곡하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15) 매년 성전에 갈 때마다 이를 위해 간구하고 개인 기도를 많이 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롬8:28) 둘째, 서원의 결단성이 있는 기도였습니다.(10) 서약하면 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서원은 하나의 큰 결단입니다.(약4:3) 셋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12) 기도가 참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참된 기도만 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눅18:1,-8) 넷째, 입술만 움직이는 기도였습니다.(13) 오직 하나님과만 상대로 기도한 것입니다.(시73:25)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안 들리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무소부지하다는 신앙사상입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삼 상2:3) 2) 외식이 없는 참된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장 가까웁게 생각했습니다.

다섯째, 영혼을 쏟는 기도였습니다. (15) 심정을 통한 것이 를리 2아도 서는 기도였니다 어찌이름을 정육으로 유 치는 번제와 관제처럼 기도시간의 중노동을 한 것입니다. 이 런 행위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나 기도 속에 보여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 여호와같이 거룩한 이가 없다고 함(2) 2)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다고 함(2) 3)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 하나님이라고 함(6) 4)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함(6) 5)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함(7-8) 6)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는 하나님 이라고 함(9) 7) 홀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함(10) (2)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의 움직임이 영혼을 쏟는 기도의 세계로 이끕니다.

Hannah's Prayer (1 Sam 1:1-20) 2009. 8. 23

Hannah, a housewife in a family during the chaotic era of the Judges, was a great person of prayer who, when she was suffering from infertility, prayed to God to solve her problem and offered her son, contributing to the kingdom of God. First, she prayed according to God's providence. (10) Prayer is characterized by starting from any problem, big or small. This is because she had a faith that feared Jehovah. Although it was a house for furniture, it could be said that Christ existed, and Elkanah, as a worshiper, went to Jehovah every year and offered sacrifices. (3) Even in the dark times, she had a faith that feared God. His wife Hannah was a woman of sorrow who despaired and wept bitterly because of her infertility. (15) We see that she prayed for this every time she went to the temple and prayed personally. It was a prayer that

relied on God's providence and followed the concerns of God's will (Rom 8:28). Second, it was a prayer with the determination of a vow. (10) It was a prayer that was requested with a vow. A vow is a big decision. (James 4:3) Third, it was a prayer for a long time. (12) In order for a prayer to be true, it must be prayed for a long time. He only listens to true prayers. (Luke 18:1,-8) Fourth, it was a prayer with only the lips moving. (13) It was a prayer addressed only to God (Psalm 73:25). It was a prayer with only the lips moving and no voice heard. This came from the conviction of answered prayer. 1) It is a religious idea that God is omnipotent. "The Lord is a God of knowledge; by him actions are weighed" (1 Sam 2:3). 2) It was a true prayer without pretense. It was 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God to be the closest. Fifth, it was a prayer that poured out the soul. (15) It was a prayer that went through the heart, and it was a hard labor during the prayer time, like a burnt offering and a drink offering, which was called Jeong-uk. This kind of behavior was because they knew the one who listens to prayer. What kind of God is shown in Hannah's prayer? 1) It says that there is no one holy like Jehovah (2) 2) It says that there is no rock like our God (2) 3) It says that He is the God who kills and makes alive (6) 4) It says that He is the God who brings down to Hades and raises up (6) 5) It says that He is the One who humbles and exalts (7-8) 6) It says that He is the God who guards the feet of the holy ones (9) 7) It says that He is the One who judges with justice (10) (2) Knowing God is eternal life, and the movement of eternal life leads to the world of prayer where the soul is poured out.

그리스도 안의 안식 (요5:16-29) 2009. 8. 30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진리를, 수가성 여인에게 중생의 샘 물의 은혜를 가르치신 주님은 참 안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 임을 보이셨습니다. 아담이 잃은 안식을 회복하시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실안식이 복안 식으로 바뀌어졌다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본문을 무 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안식을 잃은 자신을 인정하라고 가르칩니다. 베테 스다 못 가의 병자는 안식을 잃은 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 로 인해 병이 생겼고,(14) 병이 생기니 안식이 없어졌습니다.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7) 경쟁에 진 사람처럼 얼마나 가련한 모습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그에게 안식이 없는 증거가 어떻게 나 타났습니까? 4가지 증거로 나타났습니다. 1) 권태로 나타났 습니다. 오랜 기간 아프니까 사람의 육체도 약하겠지만 반복 되는 일로 마음은 허탈과 절망과 권태의 늪에 빠진 것과 같 습니다. 아마 지옥은 영원한 권태의 연속일 것입니다. 2) 요 행을 바라는 인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테스다 못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기적으로 치 료된다는 것입니다. 3) 도울 자 없는 처절한 궁핍으로 나타 났습니다. 4)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는 변두리 인생의 고독을 발견합니다. 진정한 안식이 없는 자신을 인정하고 참 안식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안식일 문 제로 발단된 논쟁(17-47)의 결론으로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 직접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시편 75편의 시인처럼 신자가 당하는 반복적인 갈등에도 그 대답은 "예수 안식"이며 여호와 경외가 안식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란 것입 니다. 예수=안식이란

선포입니다. 셋째,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1)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합니다. 2) 믿어야합니다. 3) 아버지가 주는 영광만을 구해야합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준비된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Rest in Christ (John 5:16-29) 2009. 8. 30

The Lord, who taught Nicodemus the truth of rebirth and the woman of Sychar the grace of the fountain of rebirth, showed that true rest is Jesus Himself. He clearly showed His intention to restore the rest that Adam had lost. It is a declaration that the rest of reality has been changed to the rest of blessing in Christ. What does the text say about enjoying true rest in this world where there are many places to rest? First, it teaches us to acknowledge that we have lost our rest. The sick man at the pool of Bethesda is a sinner who has lost his rest. He became sick because of sin (14), and because he became sick, he lost his rest. He became miserable. (7) How pitiful he must have been, like a person who lost a competition. How was the evidence of his lack of rest revealed to him before he met Jesus? There were four evidences. 1) He appeared as boredom. Because it is sick for a long time, the human body is weak, but because it is repeated, the mind is like falling into a swamp of despair, hopelessness, and boredom. Hell is probably a continuation of eternal boredom. 2) It appeared as a life hoping for luck. It is said that the first person to enter the pool of Bethesda when it moves will be miraculously healed from any disease. 3) It appeared as a desperate poverty with no one to help. 4) And in him, we find the loneliness of a marginalized life. I hope you will admit that you have no true rest and find true rest. Second, it teaches that there is rest only in Jesus. It is a conclusion to the controversy (17-47) that started

from the issue of the Sabbath, and it indirectly and directly testifies that there is rest only in Jesus. Like the poet of Psalm 75, the answer to the repeated conflicts that believers face is “Jesus’ rest” and that the fear of Jehovah is the only way to enjoy rest. Jesus=rest is the declaration. Third, how can we enjoy rest? 1) We must hear the voice of the Son. 2) We must believe. 3) We must seek only the glory that the Father gives. As the writer of Hebrews said, I hope you will strive to abide in Christ in order to enter the eternal rest that has been prepared.

## 성령강수의 체험 (요7:37-44) 2009. 9. 13.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의 강수를 체험할 수 있다는 약속이 요한복음 중에서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37-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과 불세례, 성령의 거듭 남,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표현된 성령의 체험이 또 다른 방 면에 일어나는 성령강수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강수 의 체험이란 어떤 것인가요?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는 체험입니다. 첫째, 성령의 강수란 무엇인가요? 성령의 역사를 강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세계를 보면서 성령을 불, 비둘기, 바람, 샘물 로 비유한 것을 보았는데 여기서는 강수(the streams of the living water)로 말했습니다. 성령을 강수로 비유한 예를 우리는 에스겔 환상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47:에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삼시간에 불어나 큰 강수를 이루어 바다까지 흘러 접하는 것마다 변화시켰습니다. 1) 모든 공간을 채우는 능력으로 나타났습 니다. 2) 속에서 밖으로 뻗어 나가는 번성의 능력으로 나타났습 니다. 3) 접촉하는 것마다 치료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성령 중만 의 표현입니다. (엡5:18)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 님의 뜻 중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부부관계, 자녀관 계, 주종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사랑, 복종, 순종의 열매가 삶속에 나타납니다. 어떤 때 어느 곳이라도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체험은 어떤 것입니까? 1) 마음(배)에서 시작됩니다.(Start from within him) 2) 흘러납니다.(will flow) 성령받은 영혼은 가 만있지 못하고 밖으로 흘러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아봅니다.(행2:) 3) 성령의 능력의 세례를 체험하도록 이 끔니다. (벧전1:8) 사도들이 또 다시 기도할 때 오순절 성령의 권세 가 그들 위에 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둘째, 성령 강수의 체험을 위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1) 창조의 성령으로 일하셨고 구원의 영으로 일하셨습니다. 2) 부활하신 주님이 분부하셨습니다. 11사도에게 성령을 받아라 고 하였고 그 후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교회에 단번에 오 신 사건이지만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합니다. 셋째, 이 은혜를 받기위해 무엇해야 합니까?) 주님이 제시한 조건 은 간단했습니다. 1)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2) "목이 말라야"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합니다. 3) 믿어야"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해, 죄 자백(요일1:9), 간구(눅11:13), 믿음(엡5:18). 그리고 주장-감사와 찬양입니다. 이번 성회에 조용히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Experienc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John 7:37-44) 2009. 9. 13.

The promise that we can experience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when we believe in Jesus as the Son of God first appears in the text of the Gospel of John. Verses 37-38 say, "If anyone thirsts,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Whoever believes in me, river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This can be said to be the experienc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which

is another aspect of the experience of the Holy Spirit expressed as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e rebirth of the Holy Spirit, and the spring water that springs up to eternal life." What is the experienc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t is the experience of a river of living water flowing from the belly of a believer. First, what is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t is the expression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s a river. Looking at the world of the Gospel of John, we see that the Holy Spirit is likened to fire, a dove, wind, and spring water, but here it is referred to as the streams of the living water. We can find an exampl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n the vision of Ezekiel. In Ezekiel 47, the spring water that flowed from the threshold swelled in an instant and formed a great river that flowed all the way to the sea, changing everything it touched. 1) It appeared as the power to fill all space. 2) It appeared as the power of prosperity that spreads outward from within. 3) It appeared as healing for everything it touched. In a word, it is an expression of the fullness of the Holy Spirit. (Ephesians 5:18)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The reason for the command is because it is the will of God. When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r relationship with your spouse, your relationship with your children, and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aster and servant become beautiful. The fruits of love, obedience, and submission appear in your life. Fruits are borne anytime, anywhere. What is that experience like? 1) It starts from within him. 2) It flows. (will flow) A soul that has received the Holy Spirit cannot stay still and is destined to flow outward. It knows itself and others recognize it. (Acts 2:) 3) It leads you to experience the baptism of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1 Peter 1:8) When the apostles were praying aga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came upon them and they boldly preached the gospel. Second, what did God

prepare for the experience of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First, 1) He worked with the Holy Spirit of creation and the Spirit of salvation. 2) The resurrected Lord commanded. He told the 11 apostles to receive the Holy Spirit, and then the Holy Spirit on Pentecost descended. It was an event that came to the church all at once, but it was repeated on individuals. He was the one who came. So the church must strive to keep the unity of the Holy Spirit. Third, what must we do to receive this grace?) The conditions the Lord presented were simple. 1) "Anyone." 2) "Must be thirsty." You must know that you are a sinner. 3) "Believe." What we can do is understand, confess our sins (John 1:9), ask (Luke 11:13), believe (Ephesians 5:18). And insist-thanks and praise. If we quietly listen to the word, obey, and strive to pray during this convention, the Lord will surely fulfill His promise.

내니, 두려워 말라 (요6:16-35) 2009. 9. 6.

요한복음 6장에 두가지의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오병이어로  
오천 명 이상을 먹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 위 를 걸으시는 사건입니다.  
전자는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보여 주었다면 후자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섭리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창조주와 섭리주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 고생 구덩이에  
넣으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시냇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지나게 하십니다. 16-17절에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 주님의 지시대로 제자들이 배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1) 어두운 때에 2) 예수님도 안 계시고 3) 광풍에  
파도가 일어나 4) 괴로운 수고가 따랐습니 다. 기적 후 고난과 곤고가  
계속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을 한 해변 길로 걷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일정 한 고생 구덩이에 넣어 훈련하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엿보이 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은  
이미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잘 아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장소와 환경과 사건을 모두 관리하고 계신 것입니 다. 바울은 시험에  
관한 진리를 고전 10:13에 1) 시험은 반드시 있다. 2) 감당할 시험만을  
만난다. 3) 시험의 때에 길을 주신다고 잘정리해 주었습니다. 둘째,  
예수의 주되심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풍 랑이 일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물 위로 걸으셔서 초자 연적 능력으로 오신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모 든 문제 위에 계시고 친히 주관하시는  
주이심을 보이신 것 입니다. 지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라고 부르던 것이

체험적 으로 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주님을 만나 시기 바랍니다. 셋째, 모든 방면에 주를 영접할 때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하신 첫마디가 "내니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상에서 다 해 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기뻐서 영접하니 곧 배가 도착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영접이 아니고 모든 방면에 주로 인정하는 영접인 것입니다. (골2:7) 회개와 믿음이란 주로 인정하는 영접행위입니다. 그 를 영접할 때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찾아오고 안심이 되고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 성령의 조명(엡 1:15-23) 2009. 12. 13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경을 하나님 의 말씀으로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체험 되려면 성경을 열 어주시는 성령의 눈 뜨임에 관심을 가져야합니다. 성경을 생명으로, 양식으로, 유일한 방법으로, 유일한 진리로 믿도록 우리의 영안을 떠는 일에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첫째, 무엇이 성령의 조명인가요? 성령의 조명은 성령의 비추임 혹은 성경을 깨닫는 것으로서 기도할 때, 말씀을 묵 상할 때, 회개할 때, 성경을 연구하고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이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 지는 것입니다.

둘째, 왜 성령은 조명하시는지요? 알게 하시려고 임하십 니다. 요14-16장에 성령에 관한 주님의 예언대로 성령이 하 시는 일은 1)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이고 2) 영원히 내주하신 것이고 3) 우리를 교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공통된 목적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안다는 "기노스코"와 야다"는 부부가 동침함으로 아는 경험적 지식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이 주신 구속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네 가지를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1)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 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요17:3) 평생 신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타락합니다.

(2)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부르심의 소망이란 부르신 목적

#성함리지 다 사명을 양제 우리의 라임에 다 157연의

의 기업임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 때

력이 내게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죽은 시신 속에 역사하여 살게 하시고 만물의 주요 교회의 머리로서 승천하여 계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덩달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부 활의 강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스라 때에 수문 앞 광장에서 모두 모여, 성경을 읽고, 듣는 중 성령의 조명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울고 금식하는 새로운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조명이 많을 때 개인은 새로워지고 교회는 부흥됩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시면 성령의 눈 뜨임이 일어나도록 성경으

I am, Do Not Be Afraid (John 6:16-35) 2009. 9. 6.

There are two miraculous events in John 6. One is the feeding of more than five thousand people with five loaves and two fish, and the other is the walking on water. The former shows Jesus as the Creator, while the latter shows Jesus as the Providence who rules over all things. So how does Jesus, the Creator and Providence, lead us? First, He leads us by putting us in a pit of suffering. The Lord, who leads us along the quiet stream, sometimes leads us through the gloomy valley of death. In verses 16-17, after the incident of the five loaves and two fish, the disciples got into a boat and went to Capernaum as instructed by the Lord, but it got dark, Jesus was not there, and a strong wind blew and the waves rose. 1) It was dark, 2) Jesus was not there,

3) the wind was strong and the waves were rising, and 4) they were in great pain. The suffering and hardship continued after the miracle. It is like the Israelites who crossed the Red Sea walking along a coastal path. It was an event that showed the Lord's will to train them by putting them in a certain pit of suffering. Although they seemed to be going alone, the Lord already knew what would happen there and sent them. He was managing the place, the environment, and the events. Paul summarized the truth about trials in 1 Corinthians 10:13: 1) trials are inevitable. 2) we only face trials that we can handle. 3) He gives us a way during trials. Second, He lets us learn experientially that Jesus is the Lord. The Lord came to us when the storm was coming. He came with supernatural power by walking on the water. Look at verse 18. The Lord showed us that He is above all problems and that He is the Lord who personally controls them. What we used to call the Lord intellectually and habitually became known as the Lord through experience. I hope you meet the Lord who walked on the water. Third, peace comes when we welcome the Lord in all aspects. The first words the Lord said as He walked on the water were, "It is I; do not be afraid." He could say this because He resolved all fears on the cross. We joyfully welcomed Him, and soon the boat reached its destination. This is not a welcome for salvation, but a welcome that is primarily acknowledged in all aspects. (Col 2:7) Repentance and faith are acts of welcome that are primarily acknowledged. When we welcome Him, we arrive at our destination. At that time, joy comes, we feel reassured, and we arrive at our destination.



## 빛의 열매 (엡5:1-14) 2009. 1.10

습니다. 사도가 증거한 빛이란 무엇입니까?

것입니다.

람으로 한 해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세속 물결로 어려움을 당하는 에베소교 회에게 방탕과 음행과 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의 생활을 살도록 권면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음을 격려하고 있

첫째, 그 빛은 한마디로 구원과 구원의 생활입니다. 구원 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본 빛은 구원으로 이끈 초자연적 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기는 했 지만 음성은 듣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별과 같습 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를 믿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둘째, 사도가 본 빛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9절에 세 가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은 모든 일,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관계,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 입니다. 1) 착함이 나타나야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을 가 리킵니다. 헬라어 아가도수네 라는 말은 마음과 생활의 착함 과 친절함을 가리킵니다.(엡2:10) 2) 의로움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활동무대인 세상은 악한 자의 체계가 별의 별 방법 으로 언제나 역사하기 때문에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착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의가 있 어야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헬라어 디카이오수네는 "하 나님이 받으시는 옳은 것"으로서 로마서에 30회 나옵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리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은 신자는 의의 길을 계속 걸음으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삶이 되어 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진실함입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열 매인 착함과 의로움은 어제나 진실에서 나옵니다. 진실은 진 리인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거짓을 이기는 길은 그리스 도의 진리에 뿌리 내릴 때에만 가능합니다. 진실이 없는 자 는 생명을 잃은 자와 같습니다. 신자는 선한 양심의 움직임 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자입니다. 어두움을 책망하는 빛의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Eph 1:15-23) 2009. 12. 13

As we celebrate Bible Sunday, we must remember that in order to experience the faith that believes in the Bible as the Word of God, we must be interested in the opening of the eyes of the Holy Spirit who opens the Bible. We need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o open our spiritual eyes to believe in the Bible as life, food, the only method, and the only truth.

First, what is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is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or the realization of the Bible, which happens when we pray, meditate on the Word, repent, study the Bible, and obey it.

It is the supernatural and miraculous work of the Holy Spirit that opens our dark eyes.

Second, why does the Holy Spirit illuminate? He comes to make us know. According to the Lord's prophecy about the Holy Spirit in John 14-16,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1) to guide us into all truth, 2) to give us eternal life, and 3) to correct us. The common purpose is to make us know. "Kinosko" and "yadah" refer to the experiential knowledge that a couple has through sleeping togeth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believers will know Christ, know God, and know the reality of the redemption that God has given. Therefore, the apostle prays to know four things. (1) Let us know God. Knowing God is eternal life. (John 17:3) A believer lives a life of knowing God. When he does not know God, he falls.

(2) Know the hope of the calling - The hope of the calling is the purpose of the calling

#Sunghapliji Da Mission Yangje Our Lime Da 15 7yeon

It is the enterprise of the enterprise. Also, when we know the abundance of that enterprise,

we must know that the power is in me. He worked in the dead body and made it alive, and ascended to heaven as the head of the main church of all things. We have become people who exercise the power of resurrection by being attached to Christ.

In the time of Ezra, everyone gathered in the square in front of the water gate, read the Bible, and listened, and a revival occurred with the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A new resolution to cry and fast has arisen. When the Holy Spirit's illumination is abundant, individuals are renewed and churches are

revived. Whenever you come across the Bible, ask for the Holy Spirit's illumination so that the Holy Spirit's eyes may be opened.

진리가 주는 자유(요8:31-47) 2009. 9. 20.

한 간음한 여인이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건은 앞에 나오는 다른 기적들보다 더 위대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음으로 얻는 영생인데 그 영생의 핵심이 죄 사함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위성을 쏘았을 때 몸체가 벗겨지고 또 벗겨져서 마침내 알맹이만 껍데기에 진입하듯이 구원도 핵심인 죄사함을 아주 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참소자인 마귀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받고 조용히 계시던 주님이 응수하시는 모습은 심판 대를 연상하게 합니다.(눅3:)

수가성 여인의 샘플도 죄사함이 선행되었고 38년 병자의 병도 죄사함이 전제되었으며, 장막절의 진정한 의미도 목마름으로 표현된 죄 문제를 해결할 때 생기는 안식과 평안과 보호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자유의 필요성, 인생은 누구나 진정한 자유를 구합니다. 자유의지는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특권이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부자유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현장범인 그 여인에게 자유가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정관념에 빠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마귀 자손이었습니다. 신자에게는 영적 자유가 절실합니다. 주의 진리를 조용히 들음으로 참 자유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 때 자유가 온다 했습니다. (32)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진리이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길이며 생명이며 은혜며 평강입니다. 잠언 3:16절에 지혜(경외신앙)를 가진 자의 한 손에 부귀, 다른 손에 장수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4가지 억누름 1) 외부의 돌팔매질 2) 죄책감 3)

하나님의 빛 앞 에 서는 두려움 4) 이후의 불투명한 삶을 단번에 다  
해결받 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없나이다 "고 말했을 뿐입니다. 진실 과  
진실의 만남이 일어난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약속 대로 그 여인은  
용서, 평안, 목적,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그 러나 유대인들은 그를 불신  
함으로 이 선물을 영원히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진리를 아는 자의 삶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입니다. 1) 작은 것에서 부터  
큰 것을 만들 어가는 사람이 되며(12:1) 2) 모든 민족을 책임진 사람이 되  
며(창12:3), 3)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치달는 우리 시대에 진리를 아는 것이 절실합니다.

The Fruit of Light (Eph 5:1-14) 2009. 1.10

What is the light that the apostle testified about?

It is.

I hope you live a year as a person.

In the text, Paul exhorts the church in Ephesus, which is suffering from the waves of the world, to live a life of light in a world filled with debauchery, fornication, and fighting, and encourages them to live that way.

First, that light is, in a word, salvation and the life of salvation. Salvation is light, and Jesus is the light. The light that Paul saw in Damascus is the supernatural light that led to salvation. Others saw it, but did not hear its voice.

It is like the star that guided the Magi. In other words, this can be said to be Christ. Those who believe in him will go from darkness to light, from death to life. Moved

Second,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that the apostle saw? Verse 9 says three things: all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 This means that these three fruits should be manifested in every act, every thought, every word, every relationship, every time, every place, and every situation. 1) Goodness must be manifested. It refers to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goodness. The Greek word *agadosune* refers to goodness and kindness of heart and life (Eph 2:10). 2) It is the fruit of righteousness.

The world, which is our stage of activity, is always full of the schemes of the evil one in various ways, so we are told to be innocent as doves and wise as serpents. We can enlighten the world only when we are good and have righteousness in us. The Greek word *dikaiosune* means “righteousness acceptable to God” and appears 30 times in Romans.

It refers to righteousness obtained through faith. The believer who has obtained righteousness through faith must continue to walk the path of righteousness and become a sacrifice to God. 3) Truthfulness. The two fruits mentioned above, goodness and righteousness, come from yesterday and truth. Truth comes from the truth, the Word of God. The way to overcome falsehood is possible only when it is rooted in the truth of Christ. Those who do not have the truth are like those who have lost their lives. Believers are those who live by the movement of a good conscience. The light that rebukes darkness

Freedom given by truth (John 8:31-47) 2009. 9. 20.

The incident in which an adulterous woman received the Lord's forgiveness is a greater miracle than the other miracles mentioned above.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Lord's coming is to believe in Jesus as the Son of God and to obtain eternal life through that faith, and the core of that eternal life is forgiveness of sins. Just as when a satellite is launched, the body is stripped off and then stripped off again until only the core enters orbit, salvation also deals with the core, forgiveness of sins, very dramatically. The Lord's silent response to the sharp question from the accuser, the devil, reminds us of the judgment seat (Zec 3:). The water from the well of the woman of Sychar was preceded by forgiveness of sins, and the illness of the 38-year-old sick person was also preceded by forgiveness of sins. The true meaning of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the rest, peace, and protection that come when the problem of sin, expressed as thirst, is resolved. First, the necessity of freedom. Everyone in life seeks true freedom. The will to freedom is a unique privilege and gift that only humans have. However, after sin entered, life became unfree. The woman who committed the crime did not have freedom, but the bigger problem was that she was a Jew. They were living in illusions, trapped in stereotypes, and tried to kill Jesus. As it turned out, they were not descendants of Abraham, but descendants of the devil. Spiritual freedom is essential for believers. We must go to the place of true freedom by quietly listening to the truth of the Lord. Second, how can we be free? It was said that freedom comes when we know the truth. (32) Jesus himself who speaks the truth is the truth, and the Bible is the truth. The truth is the way, the life, grace, and peace. Proverbs 3:16 says that those who have wisdom (fear of God) have wealth in one hand and long life in the other. The four oppressions 1) external stone



slinging 2) guilt 3) fear of standing before the light of God 4) the opaque life afterward were all resolved at once. She simply said, “There is nothing.” The meeting of truth and truth occurred. As promised by the Lord who is the truth, the woman received forgiveness, peace, purpose, and power. However, the Jews did not believe in him and thus could not receive this gift forever. Third, the life of those who know the truth is to live as the source of blessing as descendants of Abraham. 1) They become people who create great things from small things (12:1), 2) They become people who are responsible for all nations (Gen. 12:3), and 3) They live as people of Christ who are full of grace and truth. In our age where eating out is the norm, knowing the truth is essential.

## 위로의 말씀 (요14:1-31) 2009. 9. 25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채웠을 때 주님은 위로의 조건 10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1) 성부와 성자를 계속 신뢰함 (1) 2) 제자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함. 3) 주님께서 다시 오사 그 곳에 주와 함께 있게 하심 4) 주님이 떠나심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마련하는 일 (4-11) 5)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됨 (12-14) 6) 성령을 보내주심 (15-17) 7) 주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오심(18-24) 8) 다른 보혜사가 가르치심 (25-26) 9)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심 (27) 그리고 10) 주님이 떠나심을 충분히 이해 하면 도리어 기뻐할 일(28)" 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유일한 위로의 원천. 위로의 근본 원천은 무엇보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과 자비에서 나온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알려졌고 (출15:26) 성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로 일컬었고 (눅2:25) 성령은 하나님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위로의 영으로 나타납니다.(겔36:6)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14:1)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성자의 사역이 위로가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이루시는 성자의 절대적 구원이 바로 신자 자신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역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의 구원계획은 먼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다음은 성도의 절대적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령님의 오심이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떠나심은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주님의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유익이 따랐습니다.(14:12,13-14절 참고) 이 말씀은 교회의 초석이 될 사도들에게 주신 것으로 주님의 특별한 권위를 계승함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기력한 제자들로 나타나지만 주님이 떠나 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들은 주님의 강한 도구로 일하였습니다. 이는 주님이 떠나심은 그들을 아주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들 가운데 구체적이고 개별적 역사를 위해서 성령으로 가장 가까이 오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Words of Comfort (John 14:1-31) 2009. 9. 25

When the hearts of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worry, the Lord presented 10 conditions for comfort: 1) Continue to trust in the Father and the Son (1) 2) To prepare a place for the disciples to dwell. 3) The Lord's return and His presence there with us 4) The Lord's departure is to prepare the way to the Father (4-11) 5) The disciples can do greater works (12-14) 6) The sending of the Holy Spirit (15-17) 7) The Lord's return with the Holy Spirit (18-24) 8) Another Counselor teaches us (25-26) 9) He gives us greater joy than the world gives (27) And 10) If we fully understand the Lord's departure, it is a thing to rejoice in (28)" First, the only source of comfort. The fundamental source of comfort is the Triune God Himself, so it cannot be compared to what the world gives. It is the grace and peace that comes from God's love and mercy. That is why in the Bible the Father is known as the God who heals (Exodus 15:26), the Son is called the Comforter of Israel (Luke 2:25), and the Holy Spirit is the Comforter who binds up the wounds of God's people. It appears as the Spirit of God (Ezek. 36:6). So the Lord first sai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14:1). Second, the ministry of the Son is comforting.

The saints are comforted because God is the source of comfort. And it is also comforting when we realize that the absolute salvation of the Son that God accomplishes for the saints is the ministry for the believers themselves. This is because the Father's plan of salvation is first for God's own glory and then for the absolute salvation of the saints. Third,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is comforting. The Lord's departure was beneficial for the disciples to be able to do greater works of the Lord than they are now (see 14:12, 13-14). This word was given to the apostles who would become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and it shows that they would establish the church by inheriting the Lord's special authority. The disciples appeared as powerless when they were with the Lord, but when the Lord left and the Holy Spirit came, they worked as the Lord's powerful tools. This means that the Lord's departure was not completely leaving them. Because it is the event in which the Holy Spirit came closest to them for a specific and individual history among them.

새 유월절 잔치 (요12:36-13:38) 2009. 9. 25.

유월절은 유대인의 5대 명절 중 하나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서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죽으심으로 세상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기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약시대부터 계속 지켜왔던 유월절을 완전히 성취하신 셈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 자리에서 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첫째. 행동설교(1-11): 유월절 저녁 먹는 중,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3-5) 이 행동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1주 나의 결혼한 사랑을 배웁니다. 성강장실 유 습니다. 사랑은 겸손을 통해 표현됩니다. 겸손의 바탕이 없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니라." (막10:45) 2) 주님의 속죄적 사랑을 배웁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길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도의적 입장에서 거절하여 말하기를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나이다." (8) 라고 사양했습니다. 그 때 주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 "씻는다"는 말은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만이 아니고 대속적 정결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10절이 분명히 뒷받침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혼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 가롯 유다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다는 깨끗하 지 않다 하심은 세족행위가 영적 청결 곧 속죄의 씻음을 암 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새 계명을 주심 (12-17, 34-35): 이 행동설교는 제 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기에 합당한 분위기였습니다. 제자 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 주님은 이 행동을 설명해 주셨습니 다 보도 너희에게 정하게 너희는하게 하려하여위의 목적이란 말이다. 주님을 왕으로 삼은 주의 백성은 다른 무 엇보다 주님을 본으로 삼도록 부름 받았습니 다. 주님은 자기 백성이 주님의 뜻, 주의 생각, 그리고 주님의 태도를, 그대로 닮기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의 중심에 성령을 보내어 그 일 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노력에 의한 줄달음이 아니라 성령님의 주도로 만드시 성취되는 경주입니다. 새 유 월절인 주님의 구원은 성령 안에서 영원한 효력을 약속합니 다.

New Passover Feast (John 12:36-13:38) 2009. 9. 25.

Passover is one of the five major Jewish holidays. It is a day to commemorate the liberation from slavery in Egypt, and a lamb is slaughtered, its blood is applied to the doorposts, and its meat is eaten. This Passover lamb is a type of Jesus Christ who saved his people from the sins of the world by dying. The Lord completely fulfilled the Passover that had been kept since the Old Testament by dying on the cross on Passover. While keeping Passover with his disciples in the upper room of Mark, he washed their feet and taught them a lesson. First. Sermon on Action (1-11): During the Passover supper, he got up, took off his outer garments, took a towel, wrapped it around his waist, poured water into a basin, and began to wash the disciples' feet and wiped them with the towel. (3-5) From this action, we learn two important lessons. 1)

I learned my married love. Love is expressed through humility. Love without humility is not true love. “For even the Son of Man did not come to be served, but to serve, and to give his life as a ransom for many.” (Mark 10:45) 2) We learn the Lord’s redemptive love. When it was his turn to wash Peter’s feet, Peter refused from a moral standpoint, saying, “You will never wash my feet” (8). At that time, the Lord answered, “If I do not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 Here, the word "washing" is not simply the act of washing feet, but implies a substitutionary cleansing. Verse 10 clearly supports this: "He who has bathed needs only to wash his feet, for his soul is clean. You are clean, but not all of you." Here, Jesus washed the feet of all the disciples, including Judas Iscariot, but not all of them, so the act of washing feet must imply spiritual cleansing, that is, the washing of sin. Second, the giving of a new commandment (12-17, 34-35): This sermon on action was the right atmosphere to give the disciples a new commandment. After washing all the disciples' feet, the Lord explained this action: "I will make you clean, and you will be clean." The Lord's people, who have made Him their King, are called to follow Him more than anything else. The Lord wants His people to be like Him in their will, His thoughts, and His attitude. He sends the Holy Spirit into the hearts of His people to accomplish this. Our salvation is not a race by effort, but a race that is necessarily accomp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Holy Spirit. The Lord’s salvation, the new Passover, promises eternal effectiveness in the Holy Spirit.

## 예언의 말씀 (요16:1-33) 2009. 9. 27.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모두 예언의 성격을 갖습니다. 이는 예언을 받은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어떤 말씀을 붙잡아 그것이 성취되면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이 두터워지게 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신용하여 위로 받는 근거가 됩니다. 첫째,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고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당하는 핍박양상이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세상을 통해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때 제자들이 당하는 환난의 양상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일을 누구든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요9:22) 이들의 핍박은 순전히 영적 동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3)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고 성령을 모를 뿐 아니라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적 무지는 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고 성부의 계획을 전혀 모르며 성령의 역사를 의식할 수 없게 합니다. (고전2: 14) 둘째, 다른 보혜사의 오심입니다. 까닭 없는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떠나심과 다른 보혜사의 오심은 하나님의 계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 성령의 강림은 주님의 완성된 구원사역을 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때부터 이 구원은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강림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없었던 돌발적 역사가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여러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행2:16) 성령의 사역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과 동일하고(13-15)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13-14), "그가(성령이) 내(성자) 영광을 나타내리 니 내 것(성자)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고 표현했고 끝이어 15절에는 바로 성자의 이 교훈이 성부의 것이 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성령의 교훈은 성부와 성자의 교훈 과 하나도 충돌됨이 없는 동일한 교훈임을 가리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을 믿고 신자는 항상 성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Words of Prophecy (John 16:1-33) 2009. 9. 27.

All words in the Bible have the nature of prophecy. This is because their purpose is to give assurance to the hearts of those who received the prophecy. When a believer holds on to a word and it is fulfilled, their faith in that word becomes stronger, and this becomes the basis for powerfully trusting and receiving comfort in the word of God. First, the disciples were destined to suffer in the world. The nature of the persecution that the church of God faced without cause differs somewhat depending on the situation, but it is clear that they were persecuted by the world. At that time, the nature of the tribulation that the disciples would face was prophesied to be excommunicated from Judaism or killed. At that time, being excommunicated from Judaism was a very scary thing, so everyone was afraid of this. (John 9:22) Their persecution was purely spiritual. Again, it is because they did not know God. (3) Those who do not know Christ not only do not know the Father, but also do not

know the Holy Spirit, and they are lifeless. Spiritual ignorance makes them unable to understand the work of Christ, completely ignorant of the Father's plan, and conscious of the work of the Holy Spirit. (1 Corinthians 2:14)

Second, the coming of another Comforter. God promised to send another Comforter so that we can keep our faith firm even in the midst of unjust persecution. The departure of the Lord and the coming of another Comforter are part of God's plan. Among God's plan of salvation,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s the beginning of the specific application of the Lord's completed work of salvation to the church. Since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this salvation has been working more specifically, individually, and more powerfully. Therefore, the descent of the Holy Spirit is not a sudden work that was not part of God's plan, but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of many prophets since the Old Testament era. (Acts 2:16)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the same as that of the Father and the Son (13-15),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does not speak on his own initiative," but only listens. Speaking (13-14), it is expressed as, "He (the Holy Spirit) will glorify me (the Son), for he will take of what is mine (the Son) and declare it to you." Then, in verse 15, it is said that the teaching of the Son is the Father's. This indicates that the teaching of the Holy Spirit is the same teaching as the teachings of the Father and the Son without any conflict. Believing in this amazing prophecy, believers must always follow the Holy Spirit.

## 주님의 양이 받은 생명 (요10:27-28) 2009. 10. 18

모든 것이 관계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진정한 관계는 주 비자와의 관계의 회 보여지다 동해도나물과 간지의 생명 나누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 관계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이것은 주님과와의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서 주님과 개인적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자체가 해변에서 진주 를 발견한 것과 같은 복입니다. 개인적 마음의 믿음과 입술 의 고백(롬 10:9-10)으로 시작된 이 구원은 목자가 먼저 양을 선택함으로 시작됩니다. 호세아에 대한 고멜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하려 고 자신을 주심으로 자신이 푸른 잣나무와 이슬이 되신 것 입니다.(호14:8) 양과 목자가 나누는 생명관계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 목자가 양을 알고 보호하며 2)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3) 양은 목자에게 순종합니다. 3중적 생명관계로 이루어졌기에 이것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삼겹 줄 보다 더 강한 것이 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생명을 나누는 관계임을 알고 이 관계를 진실로 유지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은 영생을 받아 누리는 관계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영생을 준다고 한대로 영원히 멸망치 않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요17:3)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을 알게 하심으로 그의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호수 위에 떠다니며 자생하는 수초처럼 그리스도에게 뿌리 를 박은 신자는 어떤 난관에서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며 모든 고난을 반드시 이깁니다. 이것이 영생의 성격입니다. 셋째, 영원한 보호를 받습니다. 뺏을 자가 없는 보호입니다.

그 이유는 성부의 보호, 성자의 보호, 성령의 보호가 뒤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호의 방벽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세상의 홍수와 태풍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우리 인체도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었나요?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전체를 조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호를 누리려면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주님  
중심하여 거하며 말씀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  
15:) 에베소교회의 부흥은 이 생명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슬기도회에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The Life Received by the Sheep of the Lord (John 10:27-28) 2009. 10. 18

In a world where everything is made up of relationships, the true relationship is shown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rd and the Self, and the life-sh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Sea and the Seaweed. What is this life-sharing relationship? First, it is made up of the relationship with the Lord. The fact that we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the Lord in this world is a blessing, like finding a pearl on the beach. This salvation, which began with the faith of the individual heart and the confession of the lips (Rom. 10:9-10), begins with the shepherd first choosing the sheep. The Lord, who showed God's love through Gomer's love for Hosea, finally gave himself to bear fruit, becoming the green pine tree and the dew (Hos. 14:8). The life-sha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heep and the shepherd is shown in three ways. 1) The shepherd knows and protects the sheep, 2) The sheep hear the shepherd's voice, and 3) The sheep obey the shepherd. Since it is made up of a three-fold life-sharing relationship, no one can break it. This relationship is stronger than a three-layer cord. Knowing that it is a relationship of sharing life with the

Lord, I hope you will strive to maintain this relationship truly. Second, this is a relationship of receiving and enjoying eternal life. As the shepherd said that he would give eternal life to the sheep, he guaranteed eternal victory that will never perish. What is this eternal life? It is God Himself and knowing God (John 17:3). By letting us know God every day, His life is filled. Like the aquatic plants floating on the lake of Cambodia, believers who are rooted in Christ will know God experientially in any difficulty and will definitely overcome all hardships. This is the nature of eternal life. Third, they will receive eternal protection. It is protection that no one can take away. The reason is that it is followed by the protection of the Father, the protection of the Son, and the protection of the Holy Spirit. The wall of protection takes responsibility for us. How dangerous are the floods and typhoons of the world? How much danger are our human bodies exposed to? Problems arise when the balance is broken, but the one who adjusts the whole is God. To enjoy this protection, you just need to stay still in Christ. All you have to do is live centered on the Lord, keep His word, and enjoy His love. (John 15:) The revival of the Ephesian church is to restore this life relationship. I hope this relationship will be restored at this Dew Prayer Meeting.

## 사랑하는 자의 질고 (요11:1-16) 2009. 10. 25

신자가 당하는 연약과 질병은 저주인가 아니면 복인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해 줍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질병을 가리켜 말썽에 대한 불순종의 벌로 주어진 결과로 말하고 있고 또 한 신약의 바울도 자기 육체의 고질병을 사탄의 가시로 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3절에 보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고 하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든 것을 복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고가 따릅니다. 나사로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을 병"(죽음으로 끝나는 병)이라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신명기 28장의 기준으로 벌이 나 저주라고 하지 않고, 영광의 도구로 주장하셨고 세가지 분명한 증거를 보입니다. 1) 그가 아픈 것을 이미 아셨다는 사실(3), 2) 죽기까지 기다린 다음에 깨우러 가신 사실(11), 3) 육체의 병과 죽음을 인정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도 질병이 있고 신자에게도 질고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통해 더 높은 축복의 산으로 이끌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그러므로 섭리적 고난은 복이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신자가 당하는 질고는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고를 허락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1) 소극적으로,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나사로의 연단, 불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한 마리아의 연단, 옥함을 깨뜨리는 신앙으로의 변화를 위한 마리아의 연단을 위한 것입니다. 2) 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 생명으로 드러내시고 제자들의 믿음 성장과 유대인들 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일입니다. 셋째, 오직 믿음으로 절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기 뒤통에 태인 절고를 어떻게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나사로의 살아나는 과정에서 주님은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과 방망이 같은 말씀 체험이 일어나야하며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는 일 곧 기도에 힘써야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절고를 귀히 여기며 고난당할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겸손히 주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e Suffering of the Beloved (John 11:1-16) 2009. 10. 25

Are the weaknesses and illnesses that believers experience a curse or a blessing? What is the meaning of that? Today's text gives a clear answer to this question. In Deuteronomy 28, illness is referred to as a punishment for disobedience to the word, and in the New Testament, Paul also refers to his chronic illness as a thorn from Satan. However, in verse 3 of the text, it says, "The one you love is sick," and it is because the Lord's beloved Lazarus is said to be sick as a blessing. First, even the beloved suffers. We do not know what illness Lazarus had, but he said it was a "deadly illness" (a disease that ends in death). The Lord did not call this a punishment or a curse according to the standard of Deuteronomy 28, but claimed it as a tool of glory, and there are three clear evidences: 1) the fact that he already knew that he was sick (3), 2) the fact that he waited until he died and then woke him up (11), and 3) the fact that he was well aware that he acknowledged physical illness and death and strengthened the faith of the disciples. It is a fact that even those who love

have illnesses and believers also have hardships. God's intention to lead us to a higher mountain of blessing through suffering is embedded in this.

Therefore, we must be certain that providential suffering is a blessing. Second, the fact that the sufferings that believers experience are tools to show glory.

Then, what is the purpose of God allowing suffering? 1) Negatively, for training. Lazarus' training to transform him into a person who preaches, Mary's training to turn him from unbelief, and Mary's training to change him into a person of faith who breaks the alabaster jar. 2) The active purpose is for the glory of God. Jesus revealed himself as the resurrection and life, and the disciples' faith grew and the Jews testified about Christ to give glory to God. Third, only faith can overcome suffering. How can a believer overcome the suffering that is his own? He overcomes it by faith. The Lord taught faith in the process of Lazarus' resurrection. What kind of faith is it? It is faith that believes in the Word. Therefore, we must experience the Word like fire and a hammer, and we must participate in God's council, that is, we must strive in prayer. I hope that you will treasure the suffering of your loved ones, hear the voice of the Lord when you are suffering, and humbly go before the Lord.



**바울의 실버사역** (문 1:1-25) 2009. 11. 1.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로 사도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아킵보 집에서 모이는 교회와, 그 지도자인 빌레몬에게 쓴.정 감 넘치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노년의 삶에 대해 9절은 "나 이 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 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의 실버사역은 어떠했습니까? 한량면 기부도 원동도 못워하리 습도 안에서 나는 경정해보다 그다스 을\_위해 흥정을,,할 정도로\_하나님과 친밀하였습니다. ,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에베소교회의 부흥은 바 로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그는 교회를 더 깊이 사랑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와 그 가정에 있는 교회에 정성을 다해 편지하는 것을 봅니다.. 1부분입니다. 성도사랑, 지혜와,말입니다.바울의, 교회 은혜와 평강이 흐르는 교회 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 사랑 관계가 얼마나 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사도\_권위에 대한 주 장이 사라지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 다. (6) 승천하시곤 성령으로,오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고 몸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그\_몸이 교회입니다. 몸된 교 회는 건물이 아니고 조직이 아니고 사람들입니다. 셋째,,글는 복음사역에, 성실했습니다.,,,반울의,,경력이나\_ 지위록 보아 권위를 행사할 수 있을 만한데도 사도는 빌레몬을 동역자로 생각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매우 힘썼습니다. 사도의 덕을 많이 본 그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명령하지 않고 권했습니다. 그가 자원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13-14)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 습니다.(24). 감옥에서도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만들 정도로 대위임 령에 성실했습니다. 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Paul's Silver Ministry (Philemon 1:1-25) 2009. 11. 1.

The Epistle to Philemon is one of the prison epistles, and it is a heartfelt letter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o the church meeting at Archippus' house with other coworkers and to Philemon, its leader. Regarding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in his old age, verse 9 expresses, "I, Paul, an old man, am now also a prisoner of Jesus Christ." What was Paul's silver ministry like? He was so close to God that he could not even give a single donation or a single movement, and in the humility, he bargained for the sake of the Lord. He who loves Christ loves the Bible. The revival of the church in Ephesus refers to loving Christ and his words. Second, he loved the church more deeply. We see that he wrote to the church in his home with all his heart. Part 1. Love for the saints, wisdom, and words. Paul's church is shown to have a church image where grace and peace flow, showing how deep the love relationship was. He thought of a church where the claim to apostolic authority disappeared and where intimate love relationships were filled. (6) Christ, who ascended to heaven and came by the Holy Spirit, is invisible to this world and is revealed through his body. That body is the church. The body of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nor an organization, but people. Third, he was faithful to the gospel ministry. Judging from his career and the record, he could exercise authority, but the apostle thought of Philemon as a co-worker and tried very hard to maintain that relationship. He did not command him in an assertive manner, but encouraged him, because he had seen many virtues from the apostle. He

wanted him to serve willingly. (13-14) He had co-workers with him (24). He was faithful to the Great Commission to the point of making a disciple named Onesimus even in prison. I hope you have a beautiful life.

## 행함있는 믿음 (약2:14-26) 2009. 11. 8

믿음과 행함의 일치 문제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오래된 이슈 중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과의 수직적 문제를 논하는 being의 문제라면 행함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doing의 문제입니다. 교회도 이 문제로 자유주의자\_보수주의자로 교파가 나누어지기도 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야고보 가르침에도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반성하는 때 이 문제를 생각함으로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첫째, 나의 믿음에 행함이 따르는가요? 믿음있는 행함이 가능한가?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은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에는 그 일치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인 야고보는 "행함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14)"고 했고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둘째, 나의 행함에 믿음이 있는가요? 모든 행함 속에 믿음이 중심인가라는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달라 붙어야 하는 것이며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일과 믿는 일은 같은 것입니다. 알고 믿는 것이나 믿고 아는 것이나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은 세상에서 행함이 인정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세상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인정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속인 약한 그였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과 그의 약속만을 바라며

본향 가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라합은 기생이라는 약한 신분에서도 소문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를 세우는 지혜로 보아야합니다. 그의 목숨내 선택이 믿음 있는 행함이었습니다. 셋째, 나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는 길을 따르는지요? 그 길은 진리를 분변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진리를 먹을 때 진리의 자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이 우리가 나갈 길입니다. 진리에 사로잡히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성령의 임재 가 있는 곳에 진정한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확증하여 열매가 풍성한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Faith with Actions (James 2:14-26) 2009. 11. 8

The issue of the unity of faith and actions is one of the oldest issues facing the church. If faith is a vertical issue with God, then actions are a horizontal issue with people. The church is also divided into liberal and conservative denominations due to this issue, and is sometimes defined as heresy.

Humanism or theism? The teachings of James clearly show this issue. He says that faith without actions is dead. I want to receive grace by thinking about this issue when I reflect on myself. First, does my faith follow actions? Is it possible to have actions with faith? Since the fruit that God expects is for faith and actions to be in agreement, the Holy Spirit will accomplish this. However, we experience many conflicts because we cannot see this unity in our lives. James, who experienced this, said, "If there is no deed, it is useless (14)" and "Faith without deeds is dead." This is the problem that arises among our

believers today. Second, is there faith in my deeds? Is faith the center of all deeds? Everything that is not done with faith is sin. Faith should always be different and should be the center and foundation. Knowing and believing are the same. Whether knowing and believing or believing and knowing, we are on the same boat. The salt and light of the world must be recognized in the world for God to be glorified. It was God's grace that Abraham's faith was recognized in the world as faith with deeds. He was weak and lied to his wife by saying she was his sister, but he lived as a traveler on his way to his hometown, hoping only for God and His promise despite the fact that he could not hope. Rahab, despite her weak status as a prostitute, feared the Lord through rumors and chose His side. What she did should not be seen as a lie, but as wisdom that established the kingdom of God. Her choice in life was a faithful deed. Third, do I follow the path of unity of faith and action? That path is discerning the truth. Since we were born with the word of truth, when we eat the truth, we will know the freedom of truth. A life where faith and action are in harmony is the path we should take. When we are captivated by the truth and pray, heaven opens. This is because true unity occurs where the Holy Spirit is present. I hope you will confirm this precious faith and go out to a place where fruit is abundant.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요20:24-31) 2009. 11. 15.

사도 요한은 부활 후 주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네 차례 (막 달라 마리아, 열 제자, 도마, 8제자)만 기록하지만 부활을 둘러싸고 주시려는 은혜와 분부와 약속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중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믿음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9)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첫째, 믿음 없는 자. 의심이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넘어뜨릴 때 쓰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일입니다. 부활 현장을 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의 손가락으로 못 자리와 창 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영어로 믿음 없는 자는 의심하는 자로 번역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정죄를 받으며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없어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 쓴 뿌리(이단 교훈)가 자라기 좋은 토양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을 위한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믿음있는 자. 그 때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 교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의심은 진정한 확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빙) 도마의 과거의 주는 바로 자기였는데 이 과정을 통해 자기가 주님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무리 속에서만 같이 믿던 자가 개인이 직접 믿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고 아세라였을지 모릅니다. 쾌락과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발견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변화입니다. 셋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실증주의는 매우 약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거기에 머무르면 불신앙의 자리로 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믿겠고 기도 응답을 보아야 믿겠다는 표적 위주는 우리를 불신앙으로 나가게 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란 성경을 믿는 자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보고 믿는 자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리로 재빨리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견고한 신앙위에 진정한 기쁨과 교제와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나갑시다.

Those who believe without seeing (John 20:24-31) 2009. 11. 15.

The Apostle John records only four incidents of the Lord appearing after the resurrection (Mary Magdalene, the ten disciples, Thomas, and the eight disciples), but he clearly shows the grace, command, and promise surrounding the resurrection. Among them, the Lord who appeared to Thomas said that the faith that saves is living as one who believes without seeing. (29) “Blessed are those who have not seen and have believed.” First, those who do not believe. Doubt is an expression of disbelief. The method Satan used to overthrow Eve was to make her doubt the word of God. Even after hearing the words of the disciples who saw the resurrection scene, he did not believe in the resurrection. He insisted that he could not believe their words until he touched the nail holes and the spear marks with his fingers. At that time, the Lord appeared and asked him, “Do not be faithless.” In English, the word “unbelieving” is



translated as “doubting.” Those who do not believe do not receive eternal life, are condemned, and cannot experience miracles. They do not have the Holy Spirit and fall from grace, and they are good soil for bitter roots (heretical teachings) to grow. We must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and that he died and rose again for our salvation. This is the way to escape all misfortune. Second, those who have faith. At that time, Thomas said, “My Lord and my God.” He confessed. Personal communication with Jesus began. The true doubt of the believer turns into true conviction. (Bob) Thomas' past Lord was himself, but through this process, he changed into the Lord. A person who believed only in the crowd now believes personally. My God may have been Baal and Asherah. He may have served pleasure and material things as God. The reason such a person confesses that Jesus is God is because an amazing discovery has occurred. This is the change of the believer. Third, those who believe without seeing. Positivism makes us have very weak faith. If we stay there, we can easily fall into the place of unbelief. The sign-oriented mindset that we will believe only when a miracle occurs and when we see answered prayers leads us into unbelief. Faith does not follow what we see. It follows what we cannot see. Then, those who believe without seeing are those who believe in the Bible. They are those who believe in the written word. Those who see and believe must quickly move to the place of believing without seeing. True joy, fellowship, and gratitude arise on this solid faith. Let's go to that place.

## 기도에서 나온 감사 (약5:13-20) 2009. 11. 22.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는 두 용어, 찬송(praise) 과 기도(prayer)를 봅니다.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you should pray.)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고 권합니다. 감사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14-15절에 믿음의 기도가 고난을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빌4:6-7) 고난 중 정말 어려운 시련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만 된다고 기도의 당위성을 말한 야고보는 곧 이어 고난의 대표격으로 병을 언급하며 그 처방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3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1)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2)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것이며 3) 그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 교회를 한 번도 떠나신 일이 없으시며 항상 그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둘째, 의인의 기도를 배워야합니다. 믿음의 기도란 의인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 시간에 제일 많이 싸우는 문제가 자기 죄악입니다. 병들면 자기 죄를 먼저 생각해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질고로 다스리시고 그를 데려가시기도 하십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도전하는 것이고 성령의 길을 막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감사 생활은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자백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간절한 기도를 배워야합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는 간절성(진실)을 바탕으로 합니다. 엘리야의 본을 통해 보인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기를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나의 기도 밀실로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은 지금도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진실한 기도입니다. 나의 밀실로 들어가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되 가장 이상적 생활, 감사생활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Gratitude from prayer (James 5:13-20) 2009. 11. 22.

In the text, we see two terms that express gratitude, praise and prayer. Verse 13 says, "Is anyone suffering? Let him pray (you should pray). Is anyone joyful? Let him praise." How does it teach us to pray in order to live a life of gratitude? First, it says to offer prayers of faith. Verses 14-15 say that prayers of faith solve suffering. It means that gratitude comes from prayers of faith. (Philippians 4:6-7) Among sufferings, the most difficult trial is illness. Therefore, James, who spoke about the necessity of prayer, saying that we must pray when suffering, immediately mentions illness a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suffering and commands us to offer prayers of faith as a prescription for it. It means that when we offer prayers of faith, we discover

the meaning of illness. James tells us to do three things: 1)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pray. 2) Anoint them with oil and pray. 3) Pray specifically for them. Then what happens? The sick are saved. The Lord heals them. The resurrected Lord has never left the church in the Holy Spirit and always works according to His will. Second, we must learn the prayer of the righteous. The prayer of faith is the prayer that the righteous can offer. The problem that we struggle with the most during prayer time is our own sins. When we are sick, it is normal to think about our own sins first. In reality, if we commit sin, God will rule us with suffering and take us away. Sin is a challenge to God's will and blocks the path of the Holy Spirit. A believer's life of gratitude is not created before the problem of sin is resolved. Even if we commit sin, if we confess, God will forgive our sins and answer our prayers. Third, we must learn to pray earnestly. The prayer of faith and the prayer of the righteous are based on earnestness (truth). This is what we see through Elijah's example. James wants us to have the courage to pray because Elijah was a person like us. When Elijah went into his prayer room and prayed, he received an answer. We too can go into our prayer room. In it, the Lord is still waiting, ready to answer. This prayer is a true prayer. If we go into our prayer room and pray about our problems, the Lord will surely answer and help us live the most ideal life, a life of gratitude.

## 신령한 복 (엡 1:1-14) 2009. 12. 6.

"신령한 복"이란 영어로 spiritual blessing (유로기아 표 뉴마티케)이란 말인데 육적 복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모든 복 의 핵심적 복입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후 온갖 고생을 하 면서 복음을 전한 사도는 어느 날 삼층천 속에 있는 교회가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발견하고 울렁거리는 감동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그 복이 임하기를 소원하여 이 편지 를 쓰는 것입니다. 문안 하자 즉시 찬송하는 것을 보면(1-3) 그의 마음에 넘치는 감격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가 찬 송과 감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 때문 이었습니다. 첫째, 그 복은 그리스도 안의 구속을 가리킵니다. 1:3절에 사도가 찬송한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으로 요약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주었으되(has blessed- 현재완료)"라고 했습니다.(요5:24) 모든 육적 복의 중심이요 근원이 바로 신령한 복임을 전제한 것입니다. 사도는 그 복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즉시, 그 실체를 설명합니다. 그 복은 어떤 것입니까? 복이란 상자를 열어보니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자신은 옥중에서 고생하고 있고 에베소 교인들도 우상 도시에서 믿음 지키기 가 힘들었지만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안 에 있는 구속(redemption)때문이었습니다. 둘째, 그 복은 어떻게 시작되어 교회 소유가 되었습니까? 사도는 삼위 하나님ی 총동원하여 이루신 구속이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4-6절에 성부 하나님의 구속계획, 7-10절에 성 자 예수님의 구속성취, 그리고 11-14절에 성령 하나님의 구 속의 적용을 설명합니다. (1) 성부가 계획하신 구속입니다.

창세전 자기 백성의 구속을 심중에 두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일부를 선택하고 그들의 일생과 영원을 예지하고 예정하셨 다고 말합니다. (5절)

(2) 성자의 성취하심, 구속은 계획으로 만 끝나지 않고 즉시 실행되어졌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 하시고 그가 정한 때에 오셔서 죽음으로 자기 백성을 얻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3:15)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신 것입니다. (3). 성령의 적용하심, 사도는. 그 복이 교회 안에 있다는 더 놀라운 사실을 본 것입니다. 성령 하나 님의 적용하시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보증수표 같은 확증으 로 아버지의 것을 보증하신 것이며 ( 이 구속의 보화를 알고 즐기라고 조명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교회는 얼마나 당당하며 소망이 넘치는가요? 그 찬송 이 여러분 가슴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Spiritual Blessing (Eph 1:1-14) 2009. 12. 6.

"Spiritual blessing" is the English word for spiritual blessing (eurogia pyo pneumatike), and it is the core blessing of all blessings, distinct from physical blessings. After being converted in Damascus and suffering all kinds of hardships while spreading the gospel, the apostle discovered one day how precious the blessings received by the church in the third heaven were, and with a stirring emotion, he wrote this letter, wishing that the same blessings would come to the Ephesian believers. When we see that he immediately began to praise after greeting them (1-3), we can sense that his heart was filled with emotion. The reason he praised and gave thanks was because of the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First, the blessing refers to the redemption in Christ. The theme of the apostle's praise in verse 1:3 is summarized as the

spiritual blessings given to us in Christ. It is the fact that "all spiritual blessings in the heavenly places have already come to the believers in Christ." "has blessed (present perfect)" (John 5:24). This presupposes that the center and source of all physical blessings is the spiritual blessing. Since the apostle knew that blessing well, he immediately explains its reality. What is that blessing? When you open the box of blessing, what is inside? Although he himself was suffering in prison and the Ephesians had a hard time keeping their faith in the idolatrous city, they were able to praise boldly because of the redemption in Christ. Second. How did that blessing begin and become the property of the church? The apostle shows what kind of redemption the triune God mobilized to accomplish. In verses 4-6, he explains the plan of redemption by the Father, in verses 7-10, the accomplishment of redemption by the Son Jesus, and in verses 11-14, he explains the application of redemption by the Holy Spirit. (1) It is the redemption planned by the Father. He says that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he had the redemption of his people in mind, and in order to accomplish this, he chose some, foresaw their lives and eternity, and predestined them. (Verse 5) (2) The accomplishment of the Son, the redemption, did not end with the plan but was carried out immediately. He promised the offspring of the woman and prophesied that he would come at the appointed time and obtain his people by death. (Gen. 3:15) He unified all things in Christ. (3). The application of the Holy Spirit, the apostle saw the more amazing fact that the blessing is in the church. He saw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pplying God. He guaranteed the Father's things with a surety check and illuminated us to know and enjoy this treasure of redemption. How dignified and hopeful is the church that the Trinity God has made the object of His love? I pray that the hymn will overflow in your hearts.

[ The end of Livng Stream, Book 14 (2009)]

Soli Deo Gloria